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아트메이크업의 表現技法 研究

-表現方法 및 使用 材料 중심으로-

2009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南 銀 宣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鄭 期 云

## 아트메이크업의 表現技法 研究

-表現方法 및 使用 材料 중심으로-

A Study on Expression Techniques of  
the Art Make up

-Focus on expression way and use material of  
art make up

2009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南 銀 宣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鄭 期 云

## 아트메이크업의 表現技法 研究

-表現方法 및 使用 材料 중심으로-

A Study on Expression Techniques of  
the Art Make up

-Focus on expression way and use material of  
art make up

이 論文을 藝術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 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南 銀 宣

南銀宣의 藝術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6月 日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 - 목 차 -

|                                |    |
|--------------------------------|----|
| I. 서론 .....                    | 1  |
| 1. 연구의 목적 .....                | 1  |
| 2. 연구의 방법 .....                | 3  |
| II.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배경 .....       | 5  |
| 1. 아트메이크업의 정의 .....            | 5  |
| 2. 아트메이크업의 역사 .....            | 6  |
| III.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        | 17 |
| 1. 디자인 구상 과정 .....             | 17 |
| 2. 재료 및 도구 .....               | 18 |
| 3.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          | 31 |
| 1) 페인팅 기법 .....                | 31 |
| 2) 액션페인팅 기법. ....              | 33 |
| 3) 풀라주 기법 .....                | 39 |
| 4) 스텐실 기법 .....                | 43 |
| 5) 에어브러시 기법 .....              | 47 |
| 6) UV 발광 기법. ....              | 49 |
| 7) 기타 기법 .....                 | 51 |
| IV.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을 응용한 작품 ..... | 53 |
| 1. 애니멀 프린트를 응용한 페인팅 작품 .....   | 53 |
| 2. 트라이벌 문양을 응용한 페인팅 작품 .....   | 57 |
| 3. 액션페인팅 기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    | 61 |
| 4. 스톤을 사용한 풀라주 기법의 메이크업 .....  | 65 |

|                            |        |
|----------------------------|--------|
| 5.스텐실을 이용한 메이크업 .....      | 69     |
| 6.UV 발광 물감을 사용한 메이크업 ..... | 73     |
| <br>V.결론 .....             | <br>77 |
| <br>참고문헌 .....             | <br>79 |
| <br>그림문헌 .....             | <br>82 |
| <br>ABSTRACT .....         | <br>85 |

## - 표 목 차 -

|                                        |    |
|----------------------------------------|----|
| <표 1> 전국의 대학(교)의 아트메이크업학과 개설 현황 .....  | 2  |
| <표 2-1> 스텐실 제작의 예 .....                | 44 |
| <표 2-2> 스텐실 작업의 예 1 .....              | 45 |
| <표 2-3> 스텐실 작업의 예 2 .....              | 45 |
| <표 3> 아트메이크업 주요 표현기법의 장, 단점 및 특징 ..... | 52 |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 종족을 표시하기 위한 신체 채색 .....    | 8  |
| <그림 2> 마오리족의 문신 MOKO .....        | 8  |
| <그림 3>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채색 .....       | 9  |
| <그림 4>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채색 .....       | 9  |
| <그림 5> 눈을 보호하기 위한 메이크업 .....      | 10 |
| <그림 6> 종교적 목적의 신체 변형 .....        | 10 |
| <그림 7> 고대 이집트인의 메이크업 .....        | 11 |
| <그림 8> 중세시대의 메이크업 .....           | 11 |
| <그림 9> 엘리자베스 1세 여왕 .....          | 11 |
| <그림 10> 안나 파블리바 .....             | 12 |
| <그림 11> 테다 바라 .....               | 12 |
| <그림 12> 다리 메이크업 .....             | 14 |
| <그림 13> 이브클라인의 인체측정 .....         | 14 |
| <그림 14> 엘리자베스 아덴 .....            | 14 |
| <그림 15> 베루슈카 바디페인팅 .....          | 14 |
| <그림 16> 잔드라로주의 컬러 웨이크 화장법 .....   | 15 |
| <그림 17> 핑크스타일 메이크업 .....          | 15 |
| <그림 18> 세르주 루땅의 아트메이크업 .....      | 16 |
| <그림 19> 2003 FW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 ..... | 16 |
| <그림 20>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된 메이크업 .....    | 32 |
| <그림 21>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된 메이크업 .....    | 32 |
| <그림 22> 동물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메이크업 .....  | 32 |
| <그림 23> 스킴블링으로 표현한 메이크업 .....     | 32 |
| <그림 24> 작가의 의도에 의한 회화적 메이크업 ..... | 33 |
| <그림 25> 착시효과를 주는 회화적 메이크업 .....   | 33 |
| <그림 26> 액션페인팅 메이크업 .....          | 37 |



|                                   |    |
|-----------------------------------|----|
| <그림 27> 액션페인팅 메이크업 .....          | 37 |
| <그림 28> 액션페인팅 메이크업 .....          | 38 |
| <그림 29> 액션페인팅 메이크업 .....          | 38 |
| <그림 30> 풀라주 메이크업 .....            | 41 |
| <그림 31> 풀라주 메이크업 .....            | 41 |
| <그림 32> 풀라주 메이크업 .....            | 41 |
| <그림 33> 풀라주 메이크업 .....            | 41 |
| <그림 34> 풀라주 메이크업 .....            | 42 |
| <그림 35> 풀라주 메이크업 .....            | 42 |
| <그림 36> 풀라주 메이크업 .....            | 42 |
| <그림 37> 풀라주 메이크업 .....            | 42 |
| <그림 38> 스텐실 메이크업 .....            | 46 |
| <그림 39> 스텐실 메이크업 .....            | 46 |
| <그림 40> 에어브러시 메이크업 .....          | 48 |
| <그림 41> 에어브러시 메이크업 .....          | 48 |
| <그림 42> 에어브러시 메이크업 .....          | 48 |
| <그림 43> 에어브러시 메이크업 .....          | 48 |
| <그림 44> UV 물감과 조명을 사용한 메이크업 ..... | 50 |
| <그림 45> UV 물감과 조명을 사용한 메이크업 ..... | 50 |
| <그림 46> UV 물감과 조명을 사용한 메이크업 ..... | 50 |
| <그림 47> UV 물감과 조명을 사용한 메이크업 ..... | 50 |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생각과 가치관, 미적성향이 다양화되어지며 그에 따라 미에 대한 기준 또한 틀에 맞추어진 획일화 보다는 시대를 앞서가며 자신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것들이 주목받는 경향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벤트 행사나 광고, 잡지의 화보 및 패션쇼 등에서 기존의 메이크업과 달리 정형화되지 않은 실험적인 작품들이 다양하게 선보여지는 추세에 있다.

원시시대의 메이크업은 신체 보호, 종족의 번식, 주술적인 의식행위로서 몸에 상처를 내어 문양을 새기는 등, 흙과 광물가루 등 자연의 천연재료를 사용한 페인팅으로 시작되었으며 시대가 변화되며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는 헤어나 패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로 표현되었던 메이크업은 이제 독창적이고 실험성이 강한 예술의 한 분야로 발전을 거듭하였고 여기에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기법이 가미되어 패션, 헤어 등의 외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은 아트메이크업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자의 연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웹 검색을 통해 전국 관련대학의 관련학과를 조사한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4년제 관련학과가 있는 19곳 중 5개의 대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 106곳 중 49개 대학에서 아트메이크업 강의가 개설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4년제 대학교는 26%, 2년제 전문대학은 46%로써,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으로의 아트메이크업은 대학교육에 있어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독립된 아트메이크업의 영역확대 및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리라 본다.

<표 1> 전국의 대학(교)의 아트메이크업학과 개설 현황

|                | 4년제 대학교 | 2.3년제 전문대학 |
|----------------|---------|------------|
| 미용관련학과         | 19      | 106        |
| 아트메이크업<br>개설학과 | 5       | 49         |

아트메이크업에 관련하여 선행 연구자인 김예성은 아트메이크업과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해서<sup>1)</sup>, 노희영은 미의 현상적 특성에 관점을 두고 새로운 미의 형태로서 현대 사회의 아트메이크업의 개념을 구축하여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과 상징성을 파악하였다.<sup>2)</sup> 유정주는 아트메이크업을 새로운 차원의 독자적인 예술의 체계로 넓혀준 오브제의 개념을 연구하여 오브제 표현이 나타난 아트 메이크업의 유형을 살피고 다양한 오브제의 소재를 분석하여 현대인의 미적 의지가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고<sup>3)</sup>, 최영숙은 아트메이크업을 신체표현 예술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비현실적인 표현욕구로부터 출발된다하여 20세기 초 모더니즘과 연관 지었고 컴퓨터그래픽의 초현실성 기법을 적용시켰다.<sup>4)</sup>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아트메이크업의 개념과 표현기법을 미술사조와 결부시킨 연구논문이 대다수로서 실질적으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에 있어 기법론 및 재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미비함을 알게되었다

- 
- 1) 김예성(2003),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i - iii
  - 2) 노희영(2002), 「현대아트메이크업의 회화적 경향과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vii - ix
  - 3) 유정주(2003),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 소재에 관한 연구」, pp. i - ii
  - 4) 최영숙(2007), 「아트메이크업에 있어서 컴퓨터 그래픽의 活用 方案」,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8-100

.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된 아트메이크업의 영역확대 및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트메이크업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와, 그 재료를 사용한 방법론적인 이론을 정립하여 아트메이크업에 있어서 올바른 재료 및 도구의 사용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아트메이크업 작업에 필요한 재료 및 기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토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아트메이크업 분야도 학문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과정을 거치게 되어 아트메이크업이 하나의 독립된 전문분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초석으로 삼아 앞으로 연구될 후속 논문에서 본 논문의 부족한 점을 보완, 수정하는 연구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메이크업의 여러 영역 중, 아트메이크업 분야로 한정되었으며, 표현함에 있어 필요한 재료 및 도구들을 정리하고 이를 사용하여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색채 및 질감을 표현하고 조형적 장식을 하는 등 시술자의 의도에 따라 창조적인 이미지로 변화가 가능한 기법 및 사용재료와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연구 방법에 관하여 언급 하였으며, 제 II 장에서는 선행 연구 논문과 관련서적 및 문헌을 통하여 아트메이크업의 정의와 기원 및 형성배경과 시대별로 발전해온 역사를 알아봄으로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개념을 재정립하였고, 제 III 장에서는 아트메이크업의 작업에 있어 디자인의 구상방법과 작업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들을 정리한 후, 이러한 재료의 사용방법에 따라 페인팅 기법, 액션페인팅 기법, 풀라주 기법, 스텐실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UV 발광 기법으로 분

류하여 관련 서적과 기존의 선행 연구 논문들을 참고로 하여 고찰하고,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제 IV장에서는 앞의 III장에서 언급한 여러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 이론을 실제에 적용시킨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제 V장에서는 이같이 연구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아트메이크업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본 연구자는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을 사용 재료에 따라 페인팅, 액션페인팅, 풀라주, 스텐실, 에어브러시, UV로 한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 1) 메이크업의 기원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고대, 중세, 20C,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트메이크업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기존의 관련 서적과 선행논문 등 문헌자료를 통하여 고찰할 것이다.
- 2) 아트메이크업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재료의 종류를 알아보고 재료의 특성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3) 선행 연구 논문 및 관련 서적, 인터넷 등의 문헌 자료를 통하여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 기법과 실제로 이러한 표현기법이 활용되어지는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4)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표현의 방법을 바탕으로 실제로 작업 과정을 거쳐 아트메이크업에 적용시킨 작품을 완성한 후, 이를 통해 아트메이크업의 기법 및 재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해봄으로서 새로운 아트메이크업의 기본 틀을 잡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 Ⅱ.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 1. 아트메이크업의 정의

메이크업이란 ‘분, 연지 등을 바르고 매만져 얼굴을 곱게 꾸밈’, 또는 ‘머리나 옷의 매무새를 매만져 맵시를 냄’ 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장이란 선천적인 자신의 용모를 시대, 지역, 문화적 특성의 범주 내에서 특정한 필요에 따라 선별, 선호, 선택된 미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해서 꾸미는 일이라고 정의된다.<sup>5)</sup> 메이크업의 어원은 화장품과 동의어로 그리스어 ‘코스메틱코스’(cosmeticos)로서 ‘잘 정리한다’, ‘잘 감싼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코스메틱코스’란 단어는 ‘코스모스’(cosmos)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의미는 질서 있는 체계, 조화를 뜻한다.<sup>6)</sup> 영어의 메이크업(Make-up)은 16세기에 연백을 원료로 한 분에 다양한 색상과 향료를 섞어 만든 안료를 색칠하는 것으로 이탈리아의 길은 화장에서 유래된 페인팅(Painting), 화장을 포함한 모든 치장을 일컫는 토일렛(Toilet), 분장을 뜻하는 연극용어였던 프랑스어인 마꾸아쥬(Maquillage)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인 리차드 크라슈(Richard Crachou)가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 행위의 의미로서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현재 사용하는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 형태의 호칭은 미국의 할리우드 전성기 때 맥스 팩터(Max Factor)에 의해 대중화되었다.<sup>7)</sup>

아트메이크업(Art Make-up)은 미용학 사전에서는 “얼굴 혹은 신체를 바탕으로 각양각색의 그림, 형태, 장식 등을 이용하여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주제를 표현하거나 창의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메이크업을 예술적 경지로 올리는 작업의 분야이다.”<sup>8)</sup>라고 정의되

5) 송민정(1991), 「우리나라 전통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6) 青山行末(1976), 『History of beauty culture』, わしやの文化, pp.12-13

7) 한명숙(2003), 『마꾸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p.1

8) 한국미용학회(2003), 『미용학사전』, p.573

었다. 다른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정의를 논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김영경은 “아트메이크업은 인체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으로 색, 표현, 주제, 기법, 재료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단지 예술적 이미지만을 중시하여 인간의 육체를 재 조형한 예술로서 새로운 현상, 새로움의 추구, 새로운 현실성 등을 알리는 것으로 인체에 디자인 한 것이다”<sup>9)</sup>라 하였고 김예성은 “다양한 개성표현의 욕구에 의해 일반화되고 도식화된 메이크업에 대한 상식을 초월하여, 작가의 주관적 감성을 인체를 통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한 개념”<sup>10)</sup>이라 하였다. 강병석은 “아트메이크업이란 넓은 의미로는 육체의 일부를 표면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재료에 관계없이 사람을 미화시키는 장식의 수단으로, 신체를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는 다양한 행위”<sup>11)</sup>라 하였고 노희영은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이며, 나아가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이고 물리적 역할로서 외형적인 아름다움의 표현과 미적 효과를 위한 것이며 사회적 역할로 무언의 의사전달 및 내적 감각의 표현”이라 하였다.<sup>12)</sup> 따라서 아트메이크업은 기존의 메이크업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인체를 하나의 캔버스라 생각하고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과 의도를 바탕으로 재료, 색채, 구성, 기법, 디자인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적인 표현을 하나의 조형예술이라 할 수 있다.

## 2. 아트메이크업의 역사

메이크업의 역사는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본능적, 사회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왔다. 문명의 상

9) 김영경(1995), 「이집트 장식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10) 김예성(2003), 전계논문, p.7

11) 강병석(1994), 「토탈 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12) 노희영(2002), 전계논문, pp.7-8

정으로 화장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유사시대까지 본능적인 미적 욕구를 위해 행해졌으며 원시시대에는 사회적 지위와 종교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최초의 화장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행위였으며 미개민족 사이에서는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행해졌고 과거에 제례의식에서 특별히 피부를 채색하기도 했다.<sup>13)</sup> 메이크업은 신체를 통한 자아표현으로서 미적 본능 표출, 신체 보호의 목적뿐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상징으로 응용되어 왔다. 이렇게 지역, 신분, 직업 등의 사회적 의미가 메이크업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했지만 현대에는 메이크업 표현에 따라 개성, 기호, 교양을 알 수 있다.<sup>14)</sup> 그 결과 메이크업은 시대가 지날수록 더 발전되었고 그 당시의 예술적 표현물로서, 외면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신적 측면까지 표현해낸다는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다.

메이크업의 기원은 여러 학설로 설명되는데, 첫째는 원시 시대에 나체 상태에서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새기거나 흙에서 나온 광물이나 황토 등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여 몸에 채색을 하는 등 신체에 장식을 했다는데서 추측된 장식 및 표시 기능설이다. 이러한 장식은 과거의 특정 시대에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오세아니아의 마오리(Maoris)족은 'MoKo'라 불리는 문신을 하였는데, 계급사회였던 마오리족에서 이 문신은 귀족계급의 특권이였으며 노예들은 강제에 의해 특정한 형태의 문신을 하여 신분을 구분하였다.<sup>15)</sup> 아메리카 인디언(America Indian)은 출정할 경우 노랑, 빨강, 파랑 등의 색을 사용하여 리듬(Rhythm)에 맞는 무늬를 얼굴에 칠했고,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원주민은 축제 때 백색, 적색, 황색의 흙을 전신에 칠한다. 아프리카(Africa) 콩고(Congo)의 마요고(Mayogo)족 여인은 자신의 피부에 칼자국을 내어 흙을 문질러 껌맨 후 아물게 하는 스카링(Scarring)을 했고 그 밖에 미얀마, 일본, 중국 등에서도 피부에 무늬를 새겨 넣는 문신을 통해 장식한 기록이 있다.<sup>16)</sup> 또한 원시 미개사회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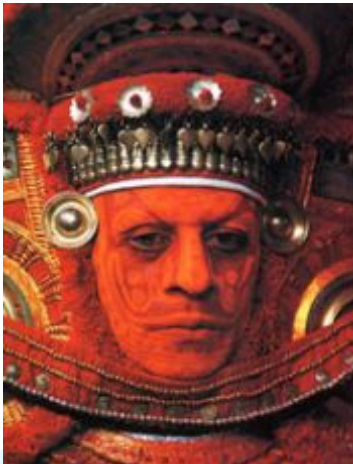
13) 김지희 외2명(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경춘사, p.8

14) 이명희(2004), 「포스트 모던적 현대 메이크업」,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4

15) 박정신(2000), 「신체 조형표현으로서의 body-painting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전쟁 후 생긴 상처가 용맹함의 상징이 되었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화장이나 상흔을 강요하기도하였으며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격차를 화장으로 구분하는 등, 심리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신분, 종족의 구분을 위하여 화장을 하였다.



<그림 1>

종족을 표시하기위한 신체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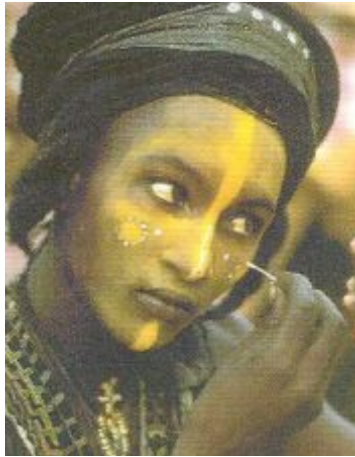
<그림 2>

마오리족의 문신 MOKO

둘째,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육체적 매력을 이용하여 종족의 보존을 하려는 이성 유인설 또는 성욕설이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존 칼 플러겔(John Carl Flugel)은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성적매력을 증가시키고 이성의 성적 관심과 동성의 질투심을 자극시키는 것”이라 하였고 찰스 다윈(Charles Dawin)은 “동물은 이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울음소리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간은 화장이나 몸을 치장하는 것에 의해 이성의 주의를 끈다”고 하였다.

실제 아프리카의 오다베(Wodabe)족은 일 년에 한번 우기 때 이웃의 종족들과 한 장소에서 많은 동물을 먹이기 위해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에서 그들은 실질적인 친척관계로 공고하고 새로운 만남을 위한 축제를 개

16) 홍지현(200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문신 유형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그림 3>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채색



<그림 4>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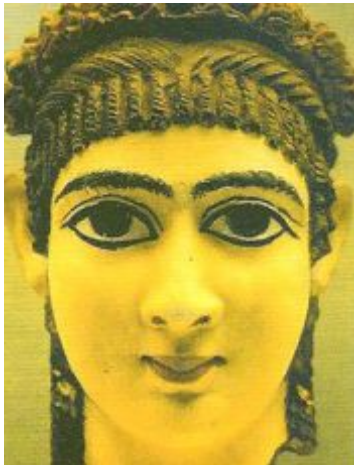
최했다. 이때 남자들은 여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치장을 하였는데 그들의 기준인 밝은 피부, 넓은 이마, 좁은 코와 입술, 눈 주위에 문신을 하고 눈의 흰자가 더 하얗게 보이기 위하여 검게 칠했다.<sup>17)</sup>

셋째, 인간은 자연환경이나 사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Egypt) 여인들은 강한 바람, 태양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한색의 인위적인 눈 화장을 했고 향료를 사용하여 곤충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했다. 또한 1800년대에는 백납분을 사용하여 촛불이나 가스의 그을음으로부터 피부의 산화를 방지하고 태양빛으로부터 흰 피부를 지켰다.<sup>18)</sup>

마지막 네 번째로 종교적, 주술적인 목적으로 악령이나 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귀신이나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얼굴에 칠을 하던 종교의식이 현재의 화장으로 발전되었다는 설로서, 고대에는 가면을 착용하여 악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했다.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에서도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마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고, 제주도에서는 갓난아이가 첫 나들이 할 때 이마와 콧등에 술밑 검댕이를 바르는 등 주

17) 박정신(2000), 전개논문, p.8

18) Mary Lou Rosencranz(1972), 『Clothing Concept』. Macmillan Publishing Co.,Inc., p.12



<그림 5> 눈을 보호하기위한 메이크업

<그림 6> 종교적 목적의 신체 변형

술적인 목적에 의한 채색이 이루어졌다.<sup>19)</sup>

고대 이집트 시대인 B.C 7500년경 인류의 본격적인 화장이 시작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은 종교적인 관습으로 몸을 단정히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한 태양빛과 바람, 벌레를 쫓기 위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나이, 성별, 계급에 상관없이 안티몬(Antimony)가루를 이용하여 검은 눈썹을 그리고 방연광으로 만든 코울(Kohl)이라는 페이스트(Paste)를 이용하여 물고기형태로 검정색의 아이라인을 그렸다. 또한 공작석을 뿔아서 녹색가루를 내어 아이새도우를 칠하였고, 풍뎅이의 황금빛 날개를 뿔아 반짝이도록 표현했는데, 이는 현대의 글리터의 최초 사용으로 여겨진다. 또한 꽃잎에서 채취한 염료를 이용하여 붉은색 입술을 그렸고 네페르티티(Nefertiti)여왕부터 클레오파트라(Cleopatra)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메이크업, 에스테틱, 향수, 가발, 화장품은 세련되고 완벽했다.

반면 그리스는 이집트의 진한 화장보다는 과하지 않은 깨끗한 얼굴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색조화장은 자제하였으며 체모를 뽑고, 마요나라(Marjoram)의 꽃과 포도 꽃에서 얻은 향료를 전신에 뿌리고 으깨거나 개어 만든 기름을 몸에 문질러 발라 피부 관리를 행하였다. 또한 푸른 산화연을 개어 만든 루즈로 입술과 볼을 칠하고 백납분을 사용하여 피부를 희

19) 천지연 외 3명(2001), 『Face in make up』, 청구문화사, p.13

게 표현했으며 최초로 콜드크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sup>20)</sup>

화려함을 좋아했던 로마는 사교활동을 목욕탕에서 할 만큼 목욕문화가 크게 발달했으며 그리스 시대처럼 흰 피부가 유행하였고, 녹색 아이섀도우를 칠하고 입술과 볼을 붉게 하였다.

중세 비잔틴(Byzantine)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화장과 목욕이 제한되었다. 고딕(Gothic)시대에 들어 흰색과 핑크색 수용성 안료를 사용하여 그리스 시대처럼 흰 피부에 붉은 입술로 화장을 하였는데 피부를 더 하얗게 보이기 위해 피를 뽑기도 하였다. 이렇듯 교권이 강했던 중세시대에 화장은 행실이 나쁜 여자나 희극인들이라 하여 일반인들의 화장품 사용은 금지되었다.

근세 르네상스(Renaissance)시대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화장을 안하면 이상할 정도로 화려한 화장을 즐겼다. 특히, 엘리자베스(Elizabeth) 1세 여왕은 눈썹을 뽑고 창백해 보일 정도로 하얗게 화장하였다.

바로크(Baroque)와 로코코(Rococo)시대로 발전해가면서 화장은 더욱 화려해졌다. 다양한 무늬의 애교 점을 붙이기도 하였고, 피부는 더 두껍고 더 하얗게 표현하였으며 볼을 붉게 칠하는 화장이 유행하였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청교도의 시민혁명의 시작으로 흰 피부를 계속 추구했지만 인위적으로 하얗게 칠하던 화장법은 쇠퇴하게 되었다. 대신 피부 관리에 관심을 쏟았고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7>  
고대 이집트인의  
메이크업



<그림 8>  
중세시대 메이크업



<그림 9>  
엘리자베스 1세 여왕

20) 김지희 외(2006), 전계서, p.17

19세기에서 20세기로 시작함과 동시에 과학, 정보, 사회의 구조적 발전이 크게 일어났다. 1900년대에는 화장품의 제조 산업이 대량생산 체제로 발전되었고 이를 계기로 화장품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 졌으며 자연스럽게 깨끗한 피부를 위한 갈망은 계속되었다. 1909년 디아길레프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인 세헤라자드(scheherazade)와 무용가 파블로바(Anna Pablova) 등의 무대에 의해 진한 색조의 화장과 동양의 오리엔탈(Oriental)이 유행하였다. 세계 제 1차 대전 동안 잠시 주춤하였던 화장은 전쟁이 끝나자 눈 주변을 검게 하는 등의 인위적인 기교로 화장술의 발전과 립스틱이 처음 등장하는 등 화장품의 발달이 있었다. 대표적 배우였던 테다 바라(Theda Bara)의 관능적인 여성미를 강조한 메이크업이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이 시대 영국에서는 유명한 문신사였던 조지 바렛(Gerge Barche)에 의한 제관식 문신이 유행하였는데 대부분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 10>안나 파블로바



<그림 11>테다 바라

1920년대가 시작되면서 영화가 대중 오락문화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고,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를 계기로 영화나 패션잡지 등 대중 매체의 증가는 이상적인 미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며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인 영향력을 갖고 메이크업의 패션화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sup>21)</sup> 1920년대에는 클라라 보우(Clara Bow)의 스타일이, 1930년대에는 진 할로우(Jean Harlow)나 비비안 리(Vivien Leigh)를 따라하는게 유행하였고, 흰 피부와 함께 건강한 피부표현과 립스틱을 사용하여 볼터치를 표현하는 기법이 행해졌다.

세계 2차 대전을 겪은 1940년대에는 아트메이크업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크게 유행하지는 못했지만 바로크시대의 패치가 부활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나일론이 귀해지면서 다리에 페인팅을 하고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하여 솔기선을 그려서 스타킹을 신은 듯 메이크업을 하는게 유행하였다.

1950년대에는 말에는 이브 클라인(Yves Klein)의 인체측정 시리즈들로 인간을 '살아있는 붓'으로 사용하는 극단적인 표현방법을 만들어 내었다. 종이와 캔버스 위에 인체를 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고 여성의 몸에 물감을 칠해 벽에 찍어내는 등 신체의 순수성과 원초성을 회복하고 바디아트의 예술형식을 만들어냈다.<sup>22)</sup>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획일적인 미에서 벗어난 개념의 변화로 아방가르드한 색채와 정형화 되지 않은 인위적이고 실험적인 아트메이크업이 선보여졌다. 엘레자베스 아덴의 파브로(Pablo)는 보석을 박거나 얼룩모양을 그리거나 날개장식을 하는 등 디자인한 눈 화장을 선보였고뷰티 북 (Vogue Beauty Book)은 판타지 아이 메이크업(Fantasy eye make up)이라는 이름으로 눈의 주변에 신비적 장식을 한 화장을 소개했다. 또한 프러시아의 귀족이자 모델인 베루슈카 본 렌드로프(Veruschka von Lehndorff)는 바디 페인팅을 선보여서 현재의 바디아트를 발전시키고 순수미술의 경지에 올랐다.

---

21) 최은지(1999),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1

22) 천지연외(2001), 전개서, pp.193-194



<그림 12>다리 메이크업



<그림 13>이브클라인의 인체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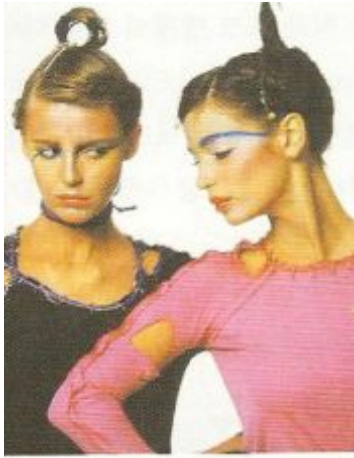
<그림 14>  
엘리자베스 아텐



<그림 15>  
베루슈카 바디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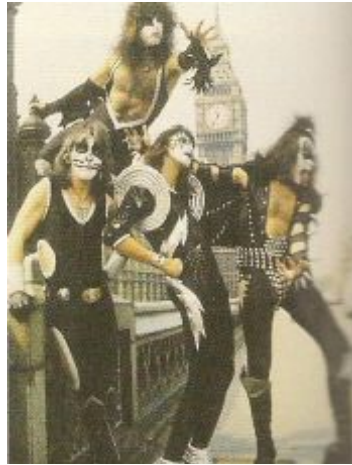
1970년대 말에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영향으로 펑크(Punk)라는 하위문화를 탄생시켰는데 이들은 창백한 피부와 블랙으로 과장된 눈과 입술을 표현했고, 디스코(Disco)와 클럽(club)의 열풍으로 화려한 글리터와 화려한 밤 화장을 탄생시켰다. 또한 디자이너 잔드라 로즈는 1970년 3월 1일 발행된 보그를 통해 컬러 퀘이크(Color quake) 화장법을 소개했는데 이것은

눈 준위에 칠하는 색의 반점을 말하는 것으로 크리스찬 디올이 시작하였으며 93가지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했다.<sup>23)</sup>



<그림 16>

잔드라 로즈의 컬러 체크 화장법



<그림 17>

펑크스타일의 메이크업

1980년대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두껍고 선명한 눈썹과 선명한 입술의 메이크업이 유행하였고, 스포츠 스타였던 그리피스 조이너(Griffith Joyner)와 이만(Iman), 마돈나(Madonna) 등의 여배우를 따라하는 화장이 함께 유행했다.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는 세르주 루팡(Serge Lutens)를 들 수 있다.

1990년대는 소련의 붕괴로 이념이 양극화되는 사회적 배경과 지구촌 오염의 문제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연주의의 내츨하거나 에스닉한 메이크업이 유행하였고, 흑인을 백인처럼 희게 하거나 주름을 방지하는 성형수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또한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등장으로 패션쇼를 통한 다양한 아트메이크업이 선보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23) 김지희외(2006), 전개서, p.195





<그림 18>  
세르주 루팡의 아트메이크업



<그림 19>  
2003 FW 크리스찬디올 컬렉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위성 TV 수신과 컴퓨터, 인터넷 등의 급격한 통신수단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문화 콘텐츠들이 쏟아졌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를 원하는 대중에 따라 시도되지 않아왔던 실험적이고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기술과 사회 문화의 발달로 메이크업 또한 획일화되기 보다는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방법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실험적이고 개성 있는 메이크업이 패션쇼나 잡지의 화보, TV의 방송 등을 통하여 선보여지고 있다.

### Ⅲ.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 1. 디자인 구상 과정

아트메이크업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다양한 주제를 재료나 표현 방법, 디자인에 있어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독창적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다. 작품을 하기 위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작품에 들어가기 전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시킬지 작품의 주제를 정해야 한다. 작품의 주제는 감성적 만족을 위한 상상의 세계나 미래적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기존의 작품들을 응용하기도 하고, 특정한 사물이나 자연, 동물 등 기존의 형상화 되어있는 것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 할 수도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둘째, 주제가 정해지면 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의 표현을 위하여 관련 서적이나 전시회,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수집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컨셉을 정한다. 주제보다 함축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하고 전체적인 연출까지 정해야 한다.

넷째, 정해진 컨셉과 자료를 바탕으로 일러스트와 함께 컨셉을 메모하여 스케치한다. 이미지 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되도록 세밀하게 디자인과 색채를 표현하고 그림으로 부족한 부분은 메모를 하여 정확하게 한다.

다섯째, 작품에 어울리는 모델을 선정한다. 아트메이크업은 신체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몸의 균형과 원하는 포즈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컨셉에 맞는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과정에서의 모델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모델이 선정되면 모델에 맞도록 수정해야 할 부분은 디자인을 수정하는 등, 구체적인 디자인 일러스트 작업이 필요하며 또한 먼저해둔 디자인 스케치를 참고하여 최종적인 일러스트를 하여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할 경우,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 작업을 해야 한다.

일곱째, 구상한 메이크업을 모델에게 표현하는 단계로서 필요한 경우 밑그림을 정확히 그린 후, 베이스는 옅은 색부터 진한 색으로 언제든 수정이 용이하도록 미리 짜둔 시안에 맞춰 작업한다.

여덟째, 완성된 작품은 필요에 따라 악세사리와 헤어 등의 스타일링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 2. 아트메이크업의 재료 및 도구

원시시대에는 자연에서 얻은 안료를 황토에 개어서 사용하거나 이집트 시대에는 안티몬가루와 방연광, 공작석 등의 광물을 갈아서 만든 것을 이용하여 눈 화장을 하였으며 고딕시대에는 흰색과 핑크색의 수성 안료와 백납분을 사용하고 장미 잎을 개어 붉은 염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이후, 메이크업 재료는 다양한 질감과 색상의 제품들이 생산되어지고 이러한 제품의 발달에 따라 메이크업의 기법 또한 발달되는 과정에 있다.

| 재료 및 도구                                      | 재료의 특성 및 사용방법                                                                                                                                                                                                                                                                                                                                                                                | 이미지                                                                                 |
|----------------------------------------------|----------------------------------------------------------------------------------------------------------------------------------------------------------------------------------------------------------------------------------------------------------------------------------------------------------------------------------------------------------------------------------------------|-------------------------------------------------------------------------------------|
| <p>언더 메이크업 베이스</p> <p>under make up base</p> | <p>피부 결을 정리해주고 파운데이션의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동시에 파운데이션의 퍼짐이 매끄럽고 잘 밀착되도록 돕는다.</p> <p>기능에 따라서 리퀴드 컬러 컨트롤류와 무색의 프라이머, 펄 베이스가 있는데 컬러 컨트롤류로는 붉은 피부를 잡아주는 그린색, 노란 피부를 화사하게 보이도록 돕는 보라색, 창백한 피부에 혈색을 부여하는 핑크색, 등이 대표적이고 무색의 프라이머는 피부의 모공을 잡아주어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하는 기능을 한다. 펄 베이스는 피부에 광택을 주어 매끄럽고 윤기나게 보이도록 해준다.</p> <p>사용방법으로는 스펀지나 손, 브러시로 펴주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는데, 무색의 프라이머 제품의 경우는 손의 열을 이용하여 흡수시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p> |  |

|                             |                                                                                                                                                                                                                                                                                                                                                                                                                                    |                                                                                      |
|-----------------------------|------------------------------------------------------------------------------------------------------------------------------------------------------------------------------------------------------------------------------------------------------------------------------------------------------------------------------------------------------------------------------------------------------------------------------------|--------------------------------------------------------------------------------------|
| <p>파운데이션<br/>Foundation</p> | <p>피부 톤을 원하는 톤으로 보정하거나 깨끗하게 해주는 정리해주는 제품이다.</p> <p>유형에 따라 리퀴드 타입(liquid type), 스틱 타입(stick type), 크림타입(cream type), 등이 있고 펄 칼라를 포함하여 다양한 컬러가 있고, 고형일수록 커버력이 높다.</p> <p>언더 메이크업 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손이나 스펀지, 브러시를 이용하여 바르는데 원하는 커버력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여 사용한다.</p> <p>손을 이용할 경우는 열에 의해 흡수력이 좋지만 위생적이지 못하고, 브러시를 이용할 경우는 얇게 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보자일 경우 브러시의 자국이 남거나 뭉칠 수 있다.</p> <p>스펀지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얇게 펴바르거나 바르고 두들겨줌을 함께하여 밀착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p> |   |
| <p>컨실러<br/>Concealer</p>    | <p>컨실러는 피부의 결점을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p> <p>컨실러의 종류에는 크림타입(cream type), 포트타입(pot type), 스틱타입(stick type), 펜슬타입(pencil type) 등이 있다.</p> <p>커버해야 할 결점의 크기에 따라서 면봉이나 다양한 종류의 브러시를 사용할 수 있고 결점의 부위에만 칠해주고 손가락이나 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파운데이션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시켜준다.</p>                                                                                                                                                                                      |  |

|                             |                                                                                                                                                                                                                                    |                                                                                      |
|-----------------------------|------------------------------------------------------------------------------------------------------------------------------------------------------------------------------------------------------------------------------------|--------------------------------------------------------------------------------------|
| <p>파우더<br/>Powder</p>       | <p>파운데이션을 포함한 유분기가 많은 밀 화장의 유분을 제거해주고 화장이 장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준다. 고형 타입의 파우더와 가루타입의 파우더가 있는데, 주로 가루타입의 파우더가 많이 사용된다.</p> <p>다양한 색채가 있고, 브러시를 이용하여 바르기도 하지만 주로 퍼프에 묻혀서 눌러주는 방법이 사용된다.</p>                                             |    |
| <p>아이섀도우<br/>Eye shadow</p> | <p>크림타입과 고체파우더 타입이 있고 블러셔로 사용도 가능하며 질감과 색채가 다양하여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게 해준다.</p> <p>손에 묻혀서 발라주기도 하지만, 주로 브러시를 이용하여 사용한다.</p> <p>사용할 부위와 섀도우의 질감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와 재질의 브러시를 선택하여 원하는 칼라를 묻혀서 손등에 색상과 가루의 떨어짐을 확인 후 채색한다.</p>                     |   |
| <p>아이라이너<br/>Eye liner</p>  | <p>속눈썹이 난 부위에 그려서 눈매를 또렷하게 해주고 눈의 모양을 원하는 모양으로 연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p> <p>고무타입의 리퀴드 라이너, 얇은 실 붓으로 물을 묻혀 쓰는 케익타입의 케익 라이너, 초보자의 사용이 용이한 붓펜 타입, 납작한 브러시를 이용하여 바르는 젤 타입의 젤 라이너 등 종류와 칼라가 다양하다. 붓펜타입이나 케익타입은 수성제품이므로 물이나 땀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p> |  |

|                         |                                                                                                                                                                                                                                                                                                                                                                                                                  |                                                                                      |
|-------------------------|------------------------------------------------------------------------------------------------------------------------------------------------------------------------------------------------------------------------------------------------------------------------------------------------------------------------------------------------------------------------------------------------------------------|--------------------------------------------------------------------------------------|
| <p>마스카라<br/>mascara</p> | <p>속눈썹을 진하고 풍성하게 보이거나 볼륨감 있어 보이게 하여 눈매가 더 깊어보이게 해준다.</p> <p>투명, 블랙, 블루, 바이올렛 등 다양한 칼라와 볼륨을 주거나 풍성한 효과를 주는 등의 효과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솔이 있다.</p> <p>보통 속눈썹을 아래에서 위로 두 세번 지그재그로 빗어주 듯 쓸어준 후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쓸어주면 진한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잘 쳐지는 속눈썹일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만 쓸어준다.</p> <p>아래 속눈썹의 경우에는 마스카라의 솔을 세워서 끝부분을 이용하여 발라주고, 마스카라가 잘 번지는 눈의 경우에는 투명마스카라를 사용하여 한번 더 발라주면 번짐을 덜하게 할 수 있다.</p> <p>또한 속눈썹 뿐 아니라 눈썹에 칠하면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 할 수 있다.</p> |   |
| <p>펜슬<br/>pencil</p>    | <p>크게는 립 전용 펜슬과 아이메이크업 전용으로 나뉘고 펜슬심의 굵기에 따라서 아이브로우용과 라이너용으로 나뉜다. 색상이 다양하고 아트메이크업시는 모티브를 스케치하는데 주로 사용된다.</p>                                                                                                                                                                                                                                                                                                      |  |



|                      |                                                                                                                                                                                                                                                                                                                                                                                                                            |                                                                                                                                                                                                                                                                                                                                              |
|----------------------|----------------------------------------------------------------------------------------------------------------------------------------------------------------------------------------------------------------------------------------------------------------------------------------------------------------------------------------------------------------------------------------------------------------------------|----------------------------------------------------------------------------------------------------------------------------------------------------------------------------------------------------------------------------------------------------------------------------------------------------------------------------------------------|
| <p>립<br/>Lip</p>     | <p>입술에 칼라와 질감을 표현해 주는 제품으로 칼라가 아주 다양하고, 표현되어지는 질감과 기능에 따라서 립스틱, 립글로스, 립밤, 립크림 등이 있다.</p> <p>가장 일반적으로 발색을 위해서는 립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글로시한 질감을 위하여 립글로스를 사용한다.</p> <p>하나씩 독립적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립스틱 위에 질감을 주기 위해 립글로스를 덧바르는데 건조할 경우 두 가지를 믹스하거나 립글로스 위에 립스틱을 발라도 좋다.</p> <p>립스틱을 직접 바르거나 립글로스에 내장되어있는 솔을 이용하여 바르기도 하지만 립 브러시를 사용하여 바르는 것이 가장 좋고, 칼라를 묻혀 입술에 직접 바르기도 하고 두 가지 칼라나 제품을 섞어 바를 경우 손등에 묻혀서 섞어 색을 확인 후 발라준다.</p> |     |
| <p>실러<br/>Sealor</p> | <p>메이크업을 고정시켜서 유분에 의한 번짐이나 밀림을 막아주고,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준다. 스프레이형으로 되어있어서 분무하는 제품도 있고, 액체로 되어 있어서 면봉이나 브러시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묻혀서 사용하는 제품도 있다.</p>                                                                                                                                                                                                                                                                                      |                                                                                                                                                                                                                                                          |

|                                       |                                                                                                                                                                                                                                                                                                                                                                                                                                                                                                                          |                                                                                                                                                                                                                                                                                                                                                                                                                                     |
|---------------------------------------|--------------------------------------------------------------------------------------------------------------------------------------------------------------------------------------------------------------------------------------------------------------------------------------------------------------------------------------------------------------------------------------------------------------------------------------------------------------------------------------------------------------------------|-------------------------------------------------------------------------------------------------------------------------------------------------------------------------------------------------------------------------------------------------------------------------------------------------------------------------------------------------------------------------------------------------------------------------------------|
| <p>아쿠아<br/>컬러<br/><br/>Aqua color</p> | <p>다른 말로 수성컬러(Water Color Base)라고도 하는데 안료가 농축되어 있어서 브러시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물을 섞어서 농도를 맞추어 개어서 사용하는 타입의 베이스제품이다.</p> <p>일반 물감을 이용하여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원하는 색을 혼합하여 사용도 가능하며 쉽게 건조되어 번짐이 적고 물에 잘 지워져서 클렌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p> <p>건조되면 움직임이 많은 부위와 두텁게 바른 부위는 갈라질 수 있고, 물에 약한 제품이라 땀에도 쉽게 지워져서 장시간 색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p> <p>주로 바디페인팅에 많이 사용되고 농도에 따라서 물에 섞어서 사용하는 고형의 케익 타입과 크림 타입, 리퀴드 타입이 있고, 색채에 따라서 일반 컬러와 글로시한 느낌의 펄 컬러(Pearl Color), 블랙라이트에 발광하며 채도가 높고 색상이 화려한 형광 컬러(Neon Color)로 구분된다.</p> |      |
|---------------------------------------|--------------------------------------------------------------------------------------------------------------------------------------------------------------------------------------------------------------------------------------------------------------------------------------------------------------------------------------------------------------------------------------------------------------------------------------------------------------------------------------------------------------------------|-------------------------------------------------------------------------------------------------------------------------------------------------------------------------------------------------------------------------------------------------------------------------------------------------------------------------------------------------------------------------------------------------------------------------------------|



|                                                |                                                                                                                                                                                                                                                                                                                                                                                                                                              |                                                                                                                                                                                                                                                            |
|------------------------------------------------|----------------------------------------------------------------------------------------------------------------------------------------------------------------------------------------------------------------------------------------------------------------------------------------------------------------------------------------------------------------------------------------------------------------------------------------------|------------------------------------------------------------------------------------------------------------------------------------------------------------------------------------------------------------------------------------------------------------|
| <p>오일 베이스<br/>컬러</p> <p>Oil Base<br/>Color</p> | <p>오일 베이스 제품으로 피부의 갈라짐이 없고 색상이 선명하고 장시간에도 발색력이 우수하고 부드럽게 발리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용이하다.</p> <p>끈적임이 있는 질감에 스타파우더나 클리터 등의 재료와 혼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 <p>오일 타입이라 잘 묻어나고 번지므로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우더나 세도우 제품을 사용하여 유분을 제거해주어야 하고 물에 닦이지 않으므로 클렌징의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p> <p>주로 얼굴 분장에 사용되고, 질감에 따라 라이닝, 혹은 슈프라라 불리는 포트타입과 스틱타입, 크림 타입, 리퀴드 타입이 있다.</p> <p>파운데이션과 비슷한 질감으로 넓은 부분에 사용할 경우 스펀지를 이용하여 두드리거나 펴서 발라주고, 좁은 부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브러시를 이용하여 채색하는 것이 편리하다.</p> |    |
| <p>디테일<br/>메이크업</p> <p>Detail<br/>Make-up</p>  | <p>수성 베이스의 제품으로 리퀴드 아이 라이너처럼 끝에 붓이 달려 있는 제품으로 다른 특별한 도구나 제품의 도움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므로 포인트나 라인의 작업 시 용이하다.</p>                                                                                                                                                                                                                                                                                                                                      |                                                                                                                                                                        |

|                                                                |                                                                                                                                                                                                                                                            |                                                                                      |
|----------------------------------------------------------------|------------------------------------------------------------------------------------------------------------------------------------------------------------------------------------------------------------------------------------------------------------|--------------------------------------------------------------------------------------|
| <p>에어브러시<br/>수성컬러</p> <p>Airbrush<br/>Water Base<br/>Color</p> | <p>에어브러시 전용 물감으로 수성타입의 액체이다. 에어브러시 건의 컵에 담아 에어브러시 건을 이용하여 분사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p> <p>한 가지 색을 사용하고 다른 색을 바꿔서 사용할 경우에는 건을 깨끗하게 씻은 후 다른 색을 담아 사용해야 혼색을 막을 수 있다.</p> <p>건조가 빠르고 물에 잘 지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빨리 건조되는 만큼 피부에 채색되었을 때 갈라짐이 있을 수 있다.</p>                         |    |
| <p>아쿠아렐<br/>Aquarelle</p>                                      | <p>수성 베이스의 리퀴드 타입의 제품으로 강약의 악센트를 주거나 섬세한 부분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p> <p>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서 색소가 고루 섞이게 해주어야 하고, 입자가 작아서 에어브러시에 사용해도 되고, 스펀지나 일반 브러시에 묻혀서 사용해도 된다.</p> <p>일반 컬러와 메탈릭 컬러 등 색채가 다양하게 다른 수성타입의 제품과도 그라데이션이 용이하며 굳이 물을 따로 섞어서 사용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p> |   |
| <p>펄 파우더<br/>Pearl Powder</p>                                  | <p>화려한 색상과 펄감으로 발색이 좋아서 뛰어난 색감을 표현하고, 가루타입으로 입자가 곱다.</p> <p>일반 브러시나 팁 브러시를 이용하여 바르거나 찍어주고, 손으로 직접 찍어서 바를 수 있다. 하나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아이섀도우 위에 화려함을 더 주기위해 덧바른다.</p>                                                                                            |  |

|                                      |                                                                                                                                            |                                                                                       |
|--------------------------------------|--------------------------------------------------------------------------------------------------------------------------------------------|---------------------------------------------------------------------------------------|
| <p>아트 펄 파우더<br/>Art pearl Powder</p> | <p>펄 파우더와 비슷하지만 피그먼트의 함량이 더 많아서 채도와 선명도와 발색이 더 뛰어나므로 강렬한 색상의 표현을 할 수 있다.</p> <p>펄 파우더와 같은 방법으로 브러시를 사용하여 칠해주거나 눌러주는 방법으로 발라준다.</p>         |     |
| <p>다이아몬드파우더<br/>Diamond Powder</p>   | <p>미세한 입자의 글리터 파우더로 투명하면서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표현된다.</p> <p>색상이 다양하게 있지만 색상을 표현하기 보다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반짝임이 주된 목적이고, 팁 브러시나 브러시를 이용하여 찍어주거나 눌러준다.</p>      |     |
| <p>레인보우 글리터<br/>Rainbow Glitter</p>  | <p>입자가 굵은 화려한 색상의 글리터로 반짝거리고 화려한 표현이 가능하다.</p> <p>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오일 베이스의 제품위에 손이나 브러시를 이용하여 바르거나 투명 립글로스나 바세린 등의 끈기가 있는 제품을 바르고 그 위에 바른다.</p> |    |
| <p>스파클링<br/>Sparkling</p>            | <p>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입자가 굵은 글리터로 강렬하게 반짝인다. 레인보우 글리터와 마찬가지로 입자가 굵으므로 접착이 가능한 끈기가 있는 제품위에 발라야 고정력을 높일 수 있다.</p>                                   |   |
| <p>야광컬러<br/>Night Glow Color</p>     | <p>블랙라이트가 없이도 빛을 받은 후 불을 끄면 빛을 발하는 효과가 있어서 어두운 장소나 밤의 행사에 효과적이다.</p> <p>손이나 브러시를 이용하거나 직접 짜는 등 원하는 부위와 디자인에 맞게 사용한다.</p>                   |  |

|                                                                 |                                                                                                                                                                                                                      |                                                                                      |
|-----------------------------------------------------------------|----------------------------------------------------------------------------------------------------------------------------------------------------------------------------------------------------------------------|--------------------------------------------------------------------------------------|
| <p>글리터 젤<br/>Glitter Gel</p>                                    | <p>글리터가 젤 타입으로 되어있어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고 굳어지므로 묻어나지 않고 고정되는 장점이 있다.</p> <p>주로 면보다는 선이나 점, 포인트 부분에 사용된다.</p> <p>야광 컬러와 같은 방법으로 손이나 브러시를 사용해도 무관하고, 원하는 부위에 직접 짜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리하다</p>                                         |    |
| <p>리퀴드 글리터<br/>Liquid Glitter</p>                               | <p>액상 글리터로 피부나 헤어에 바르면 별도의 접착제 없이 접착되어 글리터 효과를 준다.</p> <p>손이나 스펀지를 사용해도 되지만 주로 브러시에 묻혀서 필요한 부분에 바른다.</p>                                                                                                             |   |
| <p>글리터글루<br/>Glitter Glue</p>                                   | <p>가루타입 글리터의 접착 액으로 없을 시에는 투명 립글로스나 바셀린 등을 대용으로 사용해도 무관하다.</p>                                                                                                                                                       |  |
| <p>글루,<br/>라텍스,<br/>스프릿 검<br/>Glue<br/>Latex<br/>Spirit Gum</p> | <p>인체에 무해한 성질로 인조속눈썹이나 인조보석 등의 각종 재료를 피부에 부착할 때 사용되고, 타투용 글루, 인조 속눈썹용 글루, 라텍스, 강력 레이스 접착제, 스프릿 검 등이 있다.</p> <p>제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액체타입이고 건조가 빠르므로 사용 후 바로 뚜껑을 닫아 보관해야 하고, 접착력은 완전한 액체 상태일 때 보다 살짝 건조되었을 때가 더 좋다.</p> |  |

|                               |                                                                                                                                                |                                                                                      |
|-------------------------------|------------------------------------------------------------------------------------------------------------------------------------------------|--------------------------------------------------------------------------------------|
| <p>복사액<br/>Copy Liquid</p>    | <p>본래는 문신의 도안을 옮길 때 사용되는데 아트메이크업에서 원하는 모티브를 그대로 옮길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p> <p>일반 복사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피부에 부착하고 복사액을 뿌려주면 되는데, 레이저 프린터의 잉크는 복사가 불가능하다.</p> |    |
| <p>왁스<br/>Wax</p>             | <p>눈썹이 없는 디자인의 아트메이크업을 할 때 모델의 눈썹을 다 밀수 없으므로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p> <p>필요한 만큼을 떼어 손으로 녹여서 원하는 부위에 얇게 눌러서 발라준다.</p>                                   |    |
| <p>고착스프레이<br/>Fixer spray</p> | <p>메이크업의 고정력과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으로 스프레이로 되어있어 가볍게 분무하면 된다.</p> <p>너무 많이 분사하면 오히려 메이크업이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모델의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여 가볍게 분무한다.</p>                 |   |
| <p>브러시<br/>Brush</p>          | <p>사용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브러시들이 있다. 일반 아이섀도우용, 수성이나 오일 베이스의 물감용, 넓은 부위용, 좁은 부위용 등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브러시를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p>                                  |  |



|                                |                                                                                                                                                                                                                                                 |                                                                                      |
|--------------------------------|-------------------------------------------------------------------------------------------------------------------------------------------------------------------------------------------------------------------------------------------------|--------------------------------------------------------------------------------------|
| 퍼프,<br>스펀지<br>Puff,<br>Sponge  | <p>사용용도와 나타내고자 하는 질감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다.</p> <p>가장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이나 언더메이크업 베이스 등의 제품을 바를 때는 NBR 스펀지가 이용되고, 파우더를 바를 때는 먼 퍼프가 사용된다.</p> <p>수성 베이스의 물감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각, 원형 형태의 바디페인팅 스펀지나 질감의 표현을 위하여 해면 스펀지, 블랙 스펀지 등 사용하는 재료와 나타내고자 하는 질감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p> |    |
| 에어브러시건<br>Air Brush<br>Gun     | <p>에어브러시를 하기 위한 도구로 부속품인 노즐과 니들로 분사 양을 조절할 수 있고, 꺾의 크기, 니들의 선택이 가능하다.</p> <p>컵에 전용 물감을 담아 콤프레서와 연결하여 분사하는데 주의 할 점은 색채를 바꿀 때 마다 건을 세척해주어야 혼색되지 않고, 니들의 막힘을 방지에 물감이 분사되지 않거나 덩어리지어 분사됨을 막는다.</p>                                                  |   |
| 콤프레서<br>compressor             | 에어브러시의 필요기계로 에어를 건에 에어를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  |
| 블랙라이트<br>Ultra Violet<br>Light | UV 물감을 사용한 페인팅 시 조명으로 작품의 칼라를 투명하게 해주고 완성도를 높여준다.                                                                                                                                                                                               |  |

|          |                                                                                                                                                              |                                                                                      |
|----------|--------------------------------------------------------------------------------------------------------------------------------------------------------------|--------------------------------------------------------------------------------------|
| 인조속눈썹    | <p>다양한 컬러와 모양의 인조 속눈썹으로 메이크업의 효과를 더해준다.</p> <p>원하는 인조속눈썹을 눈 전용 접착제를 발라서 눈에 부착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속눈썹이 난 자리에 붙이지만 컨셉에 따라서 쌍꺼플 선에 맞게 붙이거나 눈 밑에 붙이는 등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p> |    |
| 스텐실모형    | <p>스텐실을 위해 제작된 필름으로 빠르고 간편한 작업 시 용이하다.</p> <p>스텐실 필름을 필요한 부위에 대고 에어브러시를 사용하거나 브러시, 스펀지 등을 사용하여 채색한다.</p>                                                     |   |
| 스텐실 제작도구 | <p>스텐실을 제작하기 위한 카터 칼, OHP 필름지, 시트지 등이 사용된다.</p>                                                                                                              |  |
| 타투스티커    | <p>판박이 스티커와 같은 개념으로 피부에 무해한 성분으로 접착이 가능하게 하였고 다양한 크기와 문양이 있어서 간편하게 사용이 용이하다.</p> <p>제품에 따라 물에 묻혀서 사용하거나 접착제가 붙어 있어서 그대로 접착한다.</p>                            |  |



위에 정리된 재료 외에도 달걀, 석고, 진흙, 모래, 스펅글, 타일, 종이, 끈, 비닐, 전선, 원단, 레이스, 인조보석 등 다양한 재료들이 메이크업에 응용되어 사용 될 수 있다.

### 3.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 1) 페인팅 기법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파운데이션, 아쿠아 베이스의 아쿠아 컬러, 오일 베이스의 슈프라 컬러, 아이세도 등의 다양한 질감의 색채를 브러시나 스펀지를 이용하여 정해진 컨셉에 맞게 채색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색상의 선택이 자유로워서 표현 하는 사람의 색채 감각이나 개인적인 취향, 주제, 의도에 따라서 모든 색상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sup>24)</sup>

페인팅 기법 중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회화적 표현이다.

회화적 표현은 여러 가지 회화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자연물을 양식화 하거나 기존의 예술 작품을 응용하여 다양한 모티브를 표현하거나 특정 대상을 정밀 묘사 하는 방법이고 주로 꽃, 동물, 바다, 우주, 인물 등을 모티브로 많이 제작되고 표현 또한 사실적 묘사, 관념적 묘사, 약화 등 작가의 의도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해진다.<sup>25)</sup>

그 외에도 색채를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색상 뿐 아니라 명도, 채도 등 주제에 맞게 일정한 변화를 주어 표현하는 그라데이션 기법, 물감을 적당히 닦아낸 후, 이미 칠한 부위에 둥글리며 칠하여 1차색과 자연스럽게

24) 이재형(2004),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25) 박혜선(2001), 「조선시대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혼합되어 표현되는 스컴블링(scumbling), 점을 찍듯이 붓이나 질감이 있는 스펀지를 이용하여 찍어내는 듯이 표현하는 점묘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다.



<그림 20>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한 메이크업



<그림 21>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한 메이크업



<그림 22>  
동물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메이크업



<그림 23>  
스컴블링으로 표현한 메이크업



<그림 24>

작가의 의도에 의한 회화적 메이크업



<그림 25>

착시효과를 주는 회화적 메이크업

<그림 20>, <그림 21>은 자연스러운 색채의 단계변화를 주어 나타내어 표현하는 그라데이션 표현 방법을 응용하여 아름답게 표현하였고, <그림 22>는 미국의 유명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인 ‘도전 슈퍼모델’에서 실제로 행해진 메이크업으로 동물을 컨셉으로 하여 가장 특징적인 모티브를 살려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표현된 회화적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림 23>은 여러 가지 색채를 자연스럽게 혼합시키는 미술의 표현기법인 스컴블링을 응용한 메이크업이고 <그림 24>는 ‘모스키노’의 향수광고의 지면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인 사랑스러움을 작가의 상상력을 관념적으로 묘사하여 표현한 작품이며 <그림 25>는 배경 소재인 벽돌과 모델의 얼굴을 하나로 보이도록 하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 모델의 얼굴이 마치 배경인 듯, 착시효과를 주는 정밀묘사로 표현한 작품이다.

## 2) 액션페인팅 기법

미국의 현대미술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형식과 방법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쟁을 전후로 하여 유럽의 대가들이 피난지로 택한 곳이 미국이었고, 그래서 전위미술을 시작으로 현대미술의 본격적 무대는 미국이 되었다.

1910년에 미국에서 열린 ‘아모리 쇼(Armory Show)’<sup>26)</sup>는 유럽의 새로운 미술을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 미국으로 이주해오면서 그를 중심으로 반합리적, 반예술적 운동인 다다(Dada)가 결성 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추상미술의 형성적 계기를 만들었다.

세계 제 2차 대전을 계기로 세계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린 유럽에서 창조적 예술에 대한 억압이 시작되면서 많은 미술가들이 전쟁으로부터 예술의 억압을 피해 예술가들의 기초 생활을 지원해주었던 미국으로 망명하였는데, 망명 작가인 한스 호프만(Hans Hofmann), 조셉 앨버스(Josep Alvers)와 같은 거장들을 통해 미국 추상주의 미술의 명목을 유지했다.

1940년대 한스 호프만은 캔버스를 놓고 그 위에 물감을 떨어지게 하는 드리핑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잭슨 폴록(Paul Jackson Pollock)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현대 회화의 실질적인 기반을 형성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우연을 쫓아서 자유자재로 추구하거나 행위나 물질간의 상호관계의 결과로 모양을 남겨 가는 방법에서 새로운 리얼리티의 한계성을 개척하였으며 결국 그들은 광기와 환상과 심리적인 시대상황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 의식과 무의식, 객관과 주관 그리고 꿈과 현실 등의 결합된 분계선지대를 그들의 조형 활동의 장으로 선택했으며 그러한 초현실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영향아래 추상표현주의라는 새로운 회화사조가 탄생되게 되었던 것이다.

추상표현주의는 일반적으로 1940-50년대에 미국화단을 지배하던 미국 회화사상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회화의 한 양식을 가리킨다. 이 양식은 회화에 있어서 무의식성을 강조한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에서 특히 강한 암시를 받고 형상성을 초월하고자 했다. 추상표현주의자들, 특히 폴록

---

26) 아모리 쇼 : 1913년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 최초의 국제 현대미술전

의 경우 이런 자동기술법의 강조는, 전면균질적인 공간 구성, 드립 페인팅의 개발, 또 그린다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둔 액션적인 제작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추상표현주의에 있어서의 액션의 의미는 액션에 의해 직접적으로 순간순간 창조되는 새로운 이미지의 자연스런 탐구이다. 여기서 새로운 이미지란 긴장관계의 연속이고 육체적인 동작으로 연결되어진다. 또한 액션은 내면에 대한 동시적 감성의 실존적인 외적 표현방법인 것이다.<sup>27)</sup>

액션 페인팅은 캔버스 기능의 새로운 정의를 의미한다. 캔버스는 실제 혹은 허구의 대상을 재창조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가 각자의 행동을 위해 제공되는 행동의 장이 되었다. 폭발하듯 분출되는 감정과 본능적 직관을 신체 행위를 통해 캔버스에 표현하는 것이다.

액션 페인팅에서 화가는 무엇을 그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화폭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감이 우연적으로 만들어 내는 이미지를 위해 행동을 결정하고 화면과 관계를 맺는다.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는 새로운 의미란 최종적으로 행위와 캔버스의 긴장관계인 것이다.

처음으로 액션페인팅이라고 명명한 비평가 로젠버그는 인간의 피부와 물감이 범벅이 되어 혼연일체가 되는 행위의 장의 연출은 매우 친숙한 미학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액션 페인팅은 일련의 기하학적인 추상에서 추구하던 이상주의적인 미학에서 탈피하여 현실에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기도 하고, 새로운 미술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로젠버그는 이러한 미국적인 회화는 유럽 문명스타일에 대한 반항과 이탈의 핵심으로서, 단순히 그리거나 표현하는 차원의 캔버스를, 물감을 던지고 흘리고 뿌리는 등의 ‘투기의 장’으로 변모시킨 새로운 미학이라고 옹호하였다.

20세기 중반 액션 페인팅에 이르러서는 회화에 있어서 질료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행위가 지니는 특수한 필력과 제스처까지 내부에 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질료와 액션이 함께 작용하는 회화가 성립함을 의미하는 것

---

27) 김난경(1993), 「抽象表現主義 繪畫技法을 통한 本人 作品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으로서, 이전의 양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액션 페인팅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위가 아니며 그 흔적만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상상이라는 통로를 통하는 역순의 이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sup>28)</sup>

액션페인팅은 오토마티즘(Automatism), 드립 페인팅(Drip Painting), 올 오버 페인팅(All-Over Painting)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오토마티즘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한 기법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동 작용, 자동묘법이라고도 한다. 모든 습관적 기법이나 고정관념, 이성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의 본질은 무의식의 표출이며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표현기제로 사용하여 회화의 자유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이 면에서 추상표현주의의 액션페인팅에서도 행위로서의 몸짓 그 자체를 통해 무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출하는 행동적 경향으로도 나타냈다. 이처럼 오토마티즘은 초현실주의자들이 처음 고안했으나 1950년대에 추상 표현주의에 의해 크게 발전했고 이것이 드리핑 기법의 원천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리핑 기법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을 드립 페인팅이라고 한다. 드리핑 기법은 작가가 작품을 제작할 때 붓이나 나이프 등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물감을 캔버스 위에 떨어뜨리거나 부어버리는 회화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행위 중심적 방법에 따라 작가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관계는 더 이상 화폭 바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림 그리는 작가의 감정의 움직임을 통해 화면에 곧바로 나타나게 된다. 잭슨 폴록에 이르러 이 감정적 요소는 절정에 달하게 된다.

잭슨 폴록은 40년대 말 자동적인 드리핑 기법을 바탕으로 하여 올 오버 페인팅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올 오버란, 그려진 화면의 특정한 초점 또는 중심부가 없이 화면 전체가 고루 평등한 평면으로 처리되고 있는 회화를 말한다. 신체의 행위에 의해 뿌려진 물감의 분출은 화면을 바탕과 형상이

---

28) 권선성(2004), 「추상표현주의 액션 페인팅의 우연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22



구별되지 않은 복합적 세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화가는 화면의 구성을 정교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자유로운 신체 행위 속에 내제된 무의식에 의해 회화의 공간이 결정되도록 한다. 또한 선의 개념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선들은 전통적인 그림의 기능인 이미지를 묘사하거나 윤곽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에너지의 흔적들로 자유롭게 궤도를 그린다. 또한 색채와 명암의 대비를 완화해 융합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올 오버 페인팅은 선, 색채, 명암의 강조를 통하여 화면에서 구조적 새로움을 창조했으며 액션 페인팅이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는 정점이 되는 것이다.<sup>29)</sup>

아트 메이크업에서는 주로 드리핑 기법을 많이 적용시키는데 리퀴드 타입의 인체에 무해한 물감을 이용하여 쏟아 부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연출하거나 컬러가 있는 파우더나 물감을 뿌려서 흩날리는 기법이 주로 이용된다.

작품을 하기 전 미리 색채와 디자인의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뿌리거나 떨어뜨림으로 의도하지 않은 듯한 우연성의 효과를 가진다.



<그림 26>  
액션페인팅 메이크업



<그림 27>  
액션페인팅 메이크업

29) 백미숙(2006), 「추상표현주의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



<그림 26>과 <그림 27>은 미국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인 ‘도전 슈퍼모델’에서 방영되었던 메이크업 이미지로 <그림 26>은 파랑색과 하늘색의 가루 파우더로 문질러서 문히거나 입으로 불어서 피부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진 작품이고, <그림 27>은 기본적인 메이크업 후 수성안료의 물감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물감의 질감에 의해 덩어리지거나 흘러내리도록 연출되었다.



<그림 28>  
액션페인팅 메이크업



<그림 29>  
액션페인팅 메이크업

<그림 28>은 2000년 FW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에서 행해진 메이크업으로 노란색의 강한 컬러의 수성안료 물감을 튀기듯이 뿌려서 연출되었고, <그림 29>는 유명한 액션페인팅 바디페인터인 마이키(Mike Shane)의 작품으로 미리 배경이 되는 벽과 모델에게 그린색을 칠한 후 노란색과 빨간색의 물감을 부어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연출된 사진으로 작품의 효과를 더 상승시키기 위하여 배경까지도 함께 같은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연출한 작품이다.

### 3) 콜라주 (collage) 기법

콜라주는 붙여의 ‘폴로 붙이다’, ‘아교로 붙이다’란 의미의 콜레(collar)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로<sup>30)</sup> 2차원적 평면 그림에서 3차원적 물질인 종이나 천, 쇠붙이, 모래 등 이중 재료의 조각들을 붙여 표현하는 방법 이다.

이 기법은 중세부터 19세기 말까지 공예, 대중예술 작가들의 장식적인 공예품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창조적 예술가들에 의해 미술사적 가치를 지니게 되어 조형 표현의 수단이 된 것은 20세기 초에 이르러 입체파 화가들에 의해 화면의 재질감을 높이기 위하여 세밀히 그려져야 할 부분에 종이나 형질을 사용하여 붙임으로써 시도되었다.<sup>31)</sup>

조형상에 있어 콜라주는 손으로 그린다는 전통적인 방식을 배제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물질들을 화면에 포함시킴으로서 현대 미술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왔다. <sup>32)</sup>

1912년경 브라크(Braque)와 피카소(Picasso) 등 입체파 화가들이 신문지, 성냥, 악보, 인쇄물 등을 화면에 부착하는 방법에서 시작되었는데 종이 조각을 붙인다는 뜻으로 ‘파피에 콜레’라 한다.

이후 다다, 초현실주의를 거치면서 일상의 물체, 폐품 등이 예술의 영역에 끌어들여지고, 팝아트에 이르러서는 대중문화의 요소들을 포함 할 만큼 상당히 확대되었다.<sup>33)</sup> 프랑스 화가인 뒤샹(Duchamp)의 다다이즘적 성향에서 일상용품과 낯선 장소의 배치로 원래의 유용성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도록 하는 개념인 ‘레디메이드’는 흔히 발견되는 기성제품들을 시각적인 무관심 상태에서 선택하여 서명하거나 도발적 제목을 붙여 창조

30) 월간미술(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p.398

31) 정혜순(1998), 「기하학적 모티브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콜라주 기법에 의한 부조적 표현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1

32) 유원선(1991), 「현대자수에 있어서 콜라주와 퀼트의 재료 및 표현기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33) 이영철(1996), 『21세기 문화 미리보기』, 서울:시각과 언어, p.190

함으로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산업적 오브제를 예술적 오브제로 승화시켰다.<sup>34)</sup>

파피에콜레를 확대시켜 잡지의 기사나 폐품 등과 같은 재료를 도입하여 사회의 부조리를 강렬하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포토몽타주’다.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에 의해 처음 시도된 이 방법은 사진들과 데생 화들을 조합시킨 방법이다. 다다이스트인 슈비터스(Schwitters)는 일상 공간에 폐품을 조합하여 메르츠(Merz)란 이름을 붙였고, 이 외에도 대상물 위에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 새로운 모양을 얻어내는 포토타쥬, 종이 위에 잉크를 떨어뜨린 후 반을 접어 대칭의 그림을 얻어내는 데칼코마니, 잡동사니와 오브제를 한 화면에 집성시켜 평면적 성격의 콜라주에 입체성을 부여한 잇쌍블라쥬가 있다.

잇쌍블라쥬는 1950년대 피카소와 뒤샹의 레디메이드에서 전신을 찾아 볼 수 있고 팝아트에서 발전된 기법이다.<sup>35)</sup> 마지막으로 ‘결합된 그림’이란 뜻의 콤바인 페인팅은 콜라주의 확대된 개념으로서, 이차원 혹은 삼차원의 물질을 회화에 도입하려는 미술상의 시도를 일컫는다.<sup>36)</sup> 콜라주가 회화의 조소의 벽을 허물었다면, 콤바인 페인팅은 현실세계와 예술을 접목시키고 있다. 콜라주 기법 중에 이 기법이 가장 입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이렇듯 아트메이크업에서는 인체에 접착하였을 때 해가 되지 않는 다양한 이질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여 질감과 조형적 표현을 하는데 응용되고 있다.

---

34) 오정은(2006),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콜라주 형태 및 표현특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35) 안연희(1999), 『현대미술사전』, 서울:미진사, p.111

36) 월간미술(1999), 전개서, p.459



<그림 30>  
폴라주 메이크업



<그림 31>  
폴라주 메이크업



<그림 32>  
폴라주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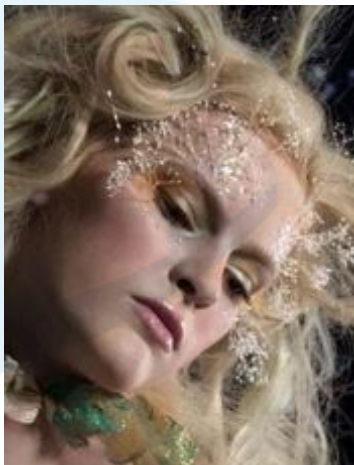
<그림 33>  
폴라주 메이크업



<그림 34>  
폴라주 메이크업



<그림 35>  
폴라주 메이크업



<그림 36>  
폴라주 메이크업



<그림 37>  
폴라주 메이크업

<그림 30>과 <그림 31>은 2008년 SS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 메이크업이

다. <그림 30>은 얇은 금박지를 네모로 잘라서 아이새도우와 눈썹을 대신 하였고, 그 위에 인조보석을 사용하여 문양을 내었으며 얇은 동판을 두드려 모양을 내어서 사용해도 비슷한 분위기로 연출이 가능하다.

<그림 31>은 깃털을 사용하여 아이메이크업을 대신한 예이며, <그림 32>는 2007년 FW 장 폴 고티에 컬렉션의 작품으로 옷에 사용된 검정색 레이스를 얼굴에 붙여서 표현한 것이며, <그림 33>은 2001년 존 갈리아노 컬렉션에서 끈과 종이를 찢거나 오려서 작업하였고, <그림 34>와 <그림 35>, <그림 36>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에서 별자리를 상징하여 표현한 작품들로 <그림 34>는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비즈를 사용하여 물고기의 비늘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였고, <그림 35>는 얇은 금박을 사용하여 질감을 표현하였는데 굵은 입자의 금색 글리터를 사용하여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림 36>은 인조 꽃 장식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효과를 더한 작품이다. <그림 37>은 Filippo Ioco의 작품으로 신문지를 얼굴과 몸에 접착시킨 작품으로 배경도 신문으로 통일시켜서 언뜻 보았을 때 모델과 배경이 하나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위에 제시된 여러 사진들에 사용된 재료 외에도 전선, 비닐, 종이테이프, 진흙, 달걀껍질, 타일, 원단, 꽃잎, 단추 등 화장품이 아닌 갖가지 이질적인 재료들이 아트메이크업에 사용되어 다양한 질감과 조형적 효과를 주어 새로운 재미를 유발시키는 재료들이다.

#### 4) 스텐실(stencil) 기법

스텐실은 ‘글자를 찍다’라는 의미의 옛 프랑스어인 ‘에스텐세라’와 라틴어인 ‘신 테이라’에서 유래된 판화기법의 일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문양을 오리거나 차단하여 판면에 뚫린 구멍으로 잉크를 밀어 넣음으로서, 막힌 부분은 종지로 그대로 남아있고 뚫린 부분은 잉크가 새어나가 종이에 찍히도록 하는 기법으로 공판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 넓은 의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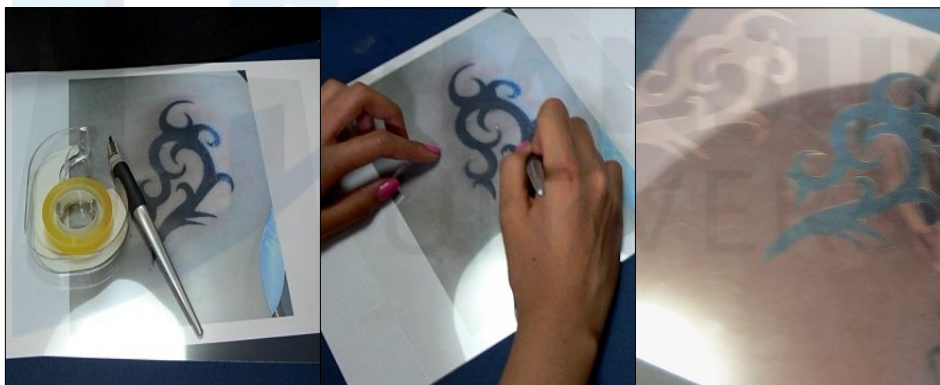


는 종이나 금속판을 오려내고 그 구멍으로 물감을 밀어 넣거나 분무기로 뿌려 넣고 찍어내는 것으로 공판화 전체를 총칭하기도 한다.<sup>37)</sup>

메이크업에서의 스텐실 기법은 나타내고자 하는 모티브를 OHP 필름 지나 시트지, 종이 등에 그린 뒤 그 부분을 오려낸 후 그 도안을 몸이나 얼굴에 놓고 에어브러시나 스펀지를 이용하여 칠하거나 찍어내어 도안을 정확하고 빠르게 옮겨내기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 재료의 문양이나 질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하여 재료에 원하는 칼라의 물감을 채색하여 직접 찍어내는 방법이 사용된다.

스텐실을 이용하면 원하는 문양을 정확하게 옮길 수 있고 일일이 그려내지 않고 바로 찍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여러 명에게 같은 문양을 그려야 할 때 같은 모티브를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어 용이하다. 하지만 미리 만들어진 문양을 이용하므로 디자인의 다양성은 떨어질 수 있다.

<표 2-1> 스텐실 제작의 예



- ① 도안과 OHP필름지, 카터 칼을 준비한다.
- ② 필름지와 도안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 ③ 도안의 문양을 카터 칼로 오려낸다.

37) 강고운(2006), 「스텐실 기법의 활용을 통한 명도와 채도의 학습지도 방안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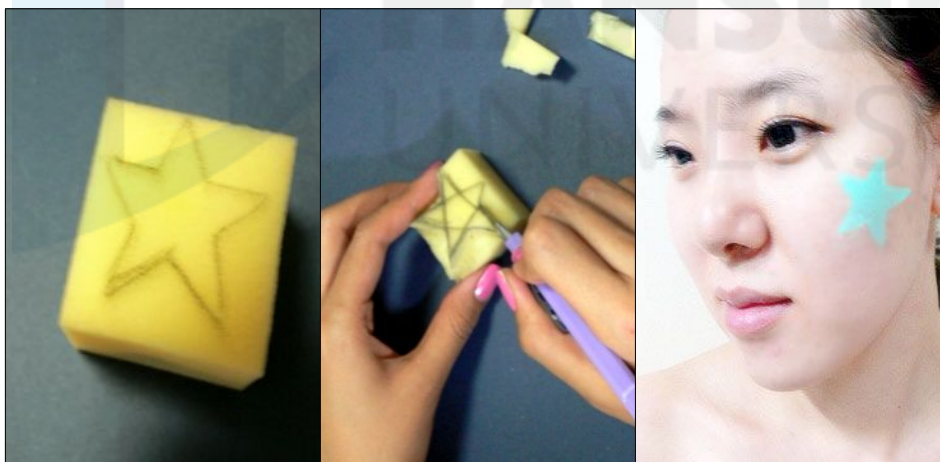
<표 2-2> 스텐실 작업의 예 1



오려둔 스텐실지를 피부에 밀착시키고 원하는 색을 칠한다.  
다음 스텐실 종이를 순서대로 대고 채색하는 방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라인을 처리하고 섬세한 작업 한다.

출처 : 김양은 외 『아트메이크업』 pp.73-76

<표 2-3> 스텐실 작업의 예 2



- ① 스펀지에 원하는 모티브를 그린다.
- ② 칼을 이용하여 모티브를 제외한 부분을 오린다.
- ③ 모티브에 물감을 묻혀서 찍어낸다.



<그림 38>  
스텐실 메이크업



<그림 39>  
스텐실 메이크업

<그림 38>과 <그림 39>는 컬렉션에서 응용된 메이크업의 실 예로 <그림 38>은 구두의 발자국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도장을 찍는 것처럼 원재료에 직접 채색하여 피부에 찍어내는 방법으로 행해진 작품이다.

<그림 39>는 2002년 한송의 컬렉션에서 선보여진 메이크업으로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월드컵을 상징하는 축구공 모양의 육각형을 모티브로 하여 도안지를 사용하여 판화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 메이크업이다.

주로 판화처럼 제작한 도안을 대고 페인팅하거나 에어브러시 하여 정확하게 모티브를 옮길 때 자주 사용되며 위에서 언급한 OHP 필름 외에도 시트지나 종이를 이용해 도안 작업을 할 수 있다.

## 5) 에어브러시(Air brush) 기법

에어브러시는 현대에 들어 디자인 작업이나 순수미술, 네일아트, 메이크업이나 스페셜 메이크업, 바디아트, 아트메이크업에서는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표현도구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추세이다.

에어브러시란 직역하면 공기 붓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업용 도색기계인 콤프레서(compressor)에 의해 압축된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물감을 일정하게 분사하는 에어브러시 건을 통해서 원하는 부위에 고루 채색하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에어브러시는 약 3만 5천년 전에 구석기인들이 속이 비어있는 뼈를 사용하여 분말인 레드오커를 동굴 벽에 뿜는데서 시작되었다. 일찍이 발견된 프랑스의 라스코나페슈멜르 동굴에 반복하여 나오는 손 이미지에서 손의 윤곽을 분사한 흔적을 볼 수 있다.<sup>38)</sup>

이후 17세기경 일본에서 ‘뿜기떡’이라는 기법이 소개되었고, 서양에서는 19세기경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sup>39)</sup> 에어브러시가 미술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93년 영국의 화가찰스 버딕(Charles Burdick)에 의해서였다.<sup>40)</sup>

우리나라에 전수된 것은 1940년대 후반경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인쇄제판의 수정과 음화 및 양화사진의 수정 등에 사용되었고<sup>41)</sup> 현재는 그래픽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현대 회화, 네일아트, 특수 분장의 작업에 사용되는 조형물의 채색뿐 아니라 일반 메이크업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기의 압력에 의한 분사방법을 이용한 에어브러시를 사용하면 붓 터치와는 다르게 깔끔한 선 처리와 붓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정교한 그라데이션, 투명감 있는 부드러운 색조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텐실과 접목시키게 되면 서로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브러시 테크닉보다 작업시간 또한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사용의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38) 이재형(2004), 전개논문, p.30

39) 오대식(2007),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아트 표현의 실제』,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40) 최성민(2006), 『The body art with colors vol.2』 다움디자인 p.8

41) 김공용(1991), 『Airbrush Illustrations』, 조형사, p.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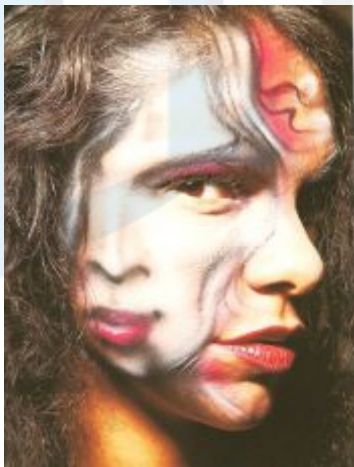
에어브러시는 전 용액을 공기로 분사하여 사용되는데, 색소에 따라 건강에 해가 되기도 하므로 작업 중에는 음식을 먹는 등은 삼가야 한다. 또한 에어브러시 건은 사용 후 항상 깨끗하게 세척,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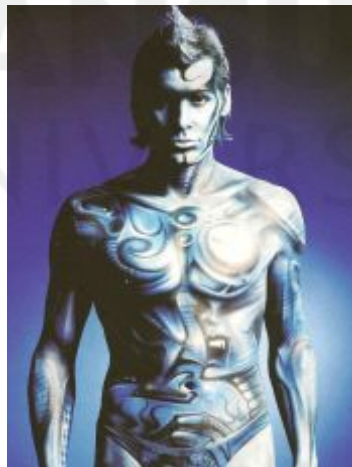
<그림 40>  
에어브러시 메이크업



<그림 41>  
에어브러시 메이크업



<그림 42>  
에어브러시 메이크업



<그림 43>  
에어브러시 메이크업

위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에어브러시를 이용하면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다.

## 6) UV(Ultra Violet) 발광 기법

일반 조명에서는 불투명한 색채로 보이지만 특수 조명인 UV라이트(블랙라이트)에서는 선명하고 투명한 색으로 발광하는 특수한 물감을 이용하여 페인팅을 하는 표현기법이다.

UV 물감은 일반 수성물감과 혼합하여 사용가능하지만 일반 물감과 함께 사용하였을 때는 색상의 선명도와 투명감이 떨어지게 된다.

UV 발광물감에 의한 작품은 블랙라이트 조명에 표현할 때 본래의 피부색인 스킨컬러는 블랙으로 표현되는 반면, UV 물감으로 채색한 부분은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색채가 네온칼라이트로 대체적으로 화려하다. 또한 특수조명에 의한 색채이므로 무대에서의 모델에 의한 퍼포먼스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므로 무대공연이나 쇼연출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UV에 의한 쇼의 연출을 하거나 사진의 작업을 할 시에는 조명의 활용도에 따라서 작품이 의도와 다르게 연출 될 수 있으므로 무대의 크기, 조명의 개수 및 위치, 모델의 연출선 등을 미리 계산하여 사전에 계획해야 작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또한, 관객석에서는 물감에 의해 채색된 부위만 보이므로 바디에 연출 할 경우에는 몸의 라인을 잘 살려서 아름다운 선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헤어라인까지도 살피야 하며 일반 조명과 UV라이트에서의 색이 달라지므로 UV라이트 조명에 모델을 비춰 확인하면서 작업해야 한다.





<그림 44>

UV 물감과 조명을 사용한 메이크업



<그림 45>

UV 물감과 조명을 사용한 메이크업



<그림 46>

UV 물감과 조명을 사용한 메이크업



<그림 47>

UV 물감과 조명을 사용한 메이크업

위의 <그림 44, 45, 46, 47>의 디자인은 Wolf Reicherter의 작품으로 블랙라이트 조명과 UV물감의 성질을 이용하여 UV 조명 아래서 작품을 연출함으로서 화려함을 극대화시켰다.



## 7) 기타 기법

위에서 언급된 페인팅, 액션페인팅, 꼴라주, 스텐실, 에어브러시, UV 이외에도 아트메이크업에 사용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헤나를 사용한 방법, 문신 또는 판박이 스티커를 사용한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한 방법,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을 사용한 방법 등, 현대에 들어 아트메이크업의 표현에 있어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는 하나의 기법을 응용한 방법에 한정지어 다루었지만, 실제 페인팅과 에어브러시, 또는 스텐실과 에어브러시, 페인팅과 꼴라주 등, 각기 다른 여러 표현방법을 함께 사용하여도 또 다른 새로운 재미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욱 다양한 작품을 제작 할 수 있다.



<표 3> 아트메이크업 주요 표현기법의 장, 단점 및 특징

| 표현<br>기법        | 사용재료                                       | 표 현 방 법                                                                    | 장 점                                                              | 단 점                                                                              |
|-----------------|--------------------------------------------|----------------------------------------------------------------------------|------------------------------------------------------------------|----------------------------------------------------------------------------------|
| 페인팅<br>기법       | 유.수성물감,<br>아이새도우,<br>등의 색채<br>표현 재료        | 회화적 표현을 위하여<br>브러시 테크닉으로<br>페인팅을 하거나<br>물감의 질감과<br>브러시, 스펀지의<br>질감을 이용한 채색 | 다양한 색채와<br>질감, 디자인을<br>표현 할 수 있다.                                | 섬세한<br>그라데이션이<br>어렵고 작업시간이<br>비교적 오래<br>걸린다.                                     |
| 액션<br>페인팅<br>기법 | 수성물감,<br>색채파우더                             | 물감이나 색이 있는<br>파우더가루를<br>뿌리거나 떨어뜨리는<br>방법                                   | 작업시간이 짧고<br>의도하지 않은<br>자연스러운<br>표현이 가능하다.                        | 재료의 양이 많이<br>들고, 의도와 다른<br>작품이 나올<br>위험이 있다                                      |
| 폴라주<br>기법       | 진흙,<br>인조보석,<br>깃털, 원단,<br>종이 등의<br>이질적 재료 | 인체에 접착이 가능한<br>재료를 응용하여<br>접착하여 조형적으로<br>표현                                | 재료의 한계성을<br>뛰어넘어 보는<br>이의 연상작용을<br>강하게 호소하고<br>재미를<br>유발시킨다.     | 인체에 무해한<br>재료를 이용하여<br>부착하지만 피부<br>트러블이 있을 수<br>있고 떨어질 수<br>있으므로<br>조심해야한다.      |
| 스텐실<br>기법       | 시트지,<br>OHP필름지,<br>종이 등                    | 원하는 모티브를<br>오려내어 찍어내는<br>방법                                                | 쉽고 빠르게<br>반복적인 작업이<br>가능하다.                                      | 미리 문양을 오려<br>준비해둬므로<br>디자인의 다양성이<br>떨어진다.                                        |
| 에어<br>브러시       | 콤프레서,<br>에어브러시<br>건,<br>전용물감               | 콤프레서와 압축된<br>공기를 이용해 물감을<br>일정하게 분사하는<br>방법                                | 갈끔한 선 처리와<br>투명감 있는 색조<br>표현과 정교한<br>그라데이션이<br>가능하고<br>작업시간이 짧다. | 장비가 필요하고<br>건의 압력 조절의<br>기술이 필요하고<br>공기 중에 안료가<br>분사되므로 모델과<br>시술자가 불편할<br>수 있다. |
| UV<br>발광<br>물감  | 블랙라이트,<br>UV물감                             | UV전용물감을<br>사용하여 채색하고<br>블랙라이트의<br>조명에서 빛을<br>발한다.                          | 무대 연출시<br>효과가 높다.                                                | 장소와 물감 등의<br>제한이 많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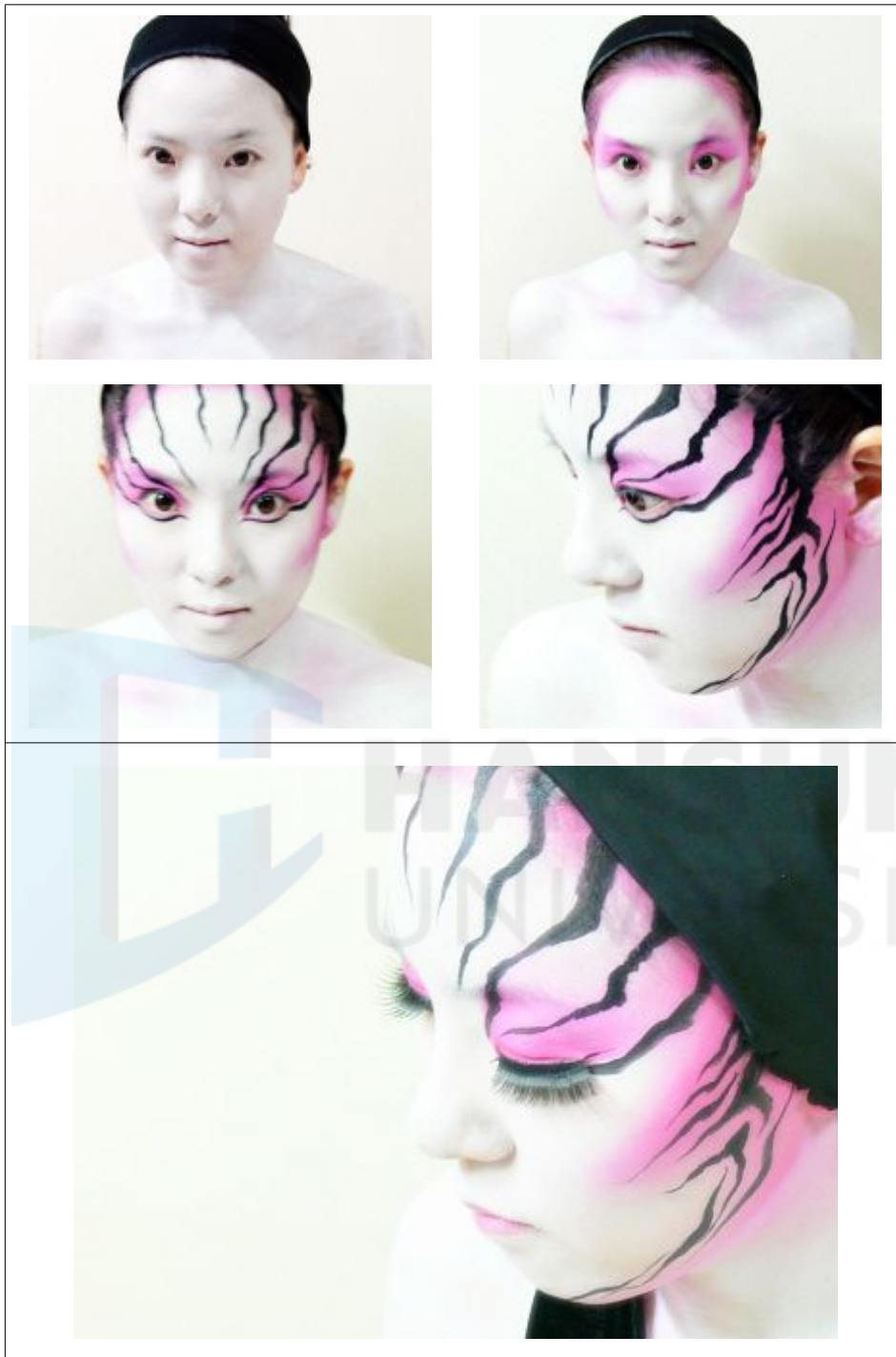
#### IV.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을 응용한 작품

##### 1.애니멀 프린트를 응용한 페인팅 작품.

| 일 러 스 트                                                                            | 응용 모티브                                                                                                                     |
|------------------------------------------------------------------------------------|----------------------------------------------------------------------------------------------------------------------------|
|  |                                         |
| 작업의도                                                                               | <p>특정한 대상인 얼룩말을 모티브로 하였고, 본래 얼룩말의 특징적인 지브라 패턴을 연구자의 상상력과 함께 단순화와 이미지화 시켜서 디자인하여 회화적으로 물감에 의한 채색 방법인 페인팅 기법을 응용하여 표현한다.</p> |

|      |                                                                                                                                                                                                                                                                                                                                                                                                                                                                                                                                                                                                                                                                                                                                                                                      |
|------|--------------------------------------------------------------------------------------------------------------------------------------------------------------------------------------------------------------------------------------------------------------------------------------------------------------------------------------------------------------------------------------------------------------------------------------------------------------------------------------------------------------------------------------------------------------------------------------------------------------------------------------------------------------------------------------------------------------------------------------------------------------------------------------|
| 사용재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흰색 파운데이션, 흰색 파우더</li> <li>* 핑크색 아쿠아 컬러, 검정색 아쿠아 컬러</li> <li>* 핑크색 아트 펄, 립글로스</li> <li>* 인조속눈썹, 브러시, 스펀지, 눈썹풀</li> </ul>                                                                                                                                                                                                                                                                                                                                                                                                                                                                                                                                                                                                                     |
| 작업순서 | <p>* 흰색 파운데이션이나 흰색 라이닝 칼라를 스펀지를 사용하여 본래의 피부색이 감춰지도록 두께감이 있게 전체적으로 고루 바른다.</p> <p>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갈라지므로 적은 양을 여러번 반복하여 발라 주는데, 바르는 과정에서 밀리거나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도록 바르고, 두드림을 반복하여 뭉침이 생기지 않게 표현한다.</p> <p>(수성칼라는 얼굴 근육 움직임 때문에 갈라질 수 있으므로 유성안료 제품을 사용한다.)</p> <p>* 흰색 파우더를 분첩을 사용하여 발라준다.</p> <p>흰색 아트 펄과 파우더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피부가 더 매끄러워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고, 흰색 베이스의 지속력도 높여줄 수 있지만 본 작품 의도와는 맞지 않아 흰색의 파우더만 사용하였다.</p> <p>* 핑크색 아트 펄을 사용하여 브러시로 눈 주변과 얼굴의 디자인에 따른 윤곽을 채색한다.</p> <p>미리 핑크색 아쿠아나, 유성 컬러를 바르고 그 위에 새도우로 마무리하면 강한 발색을 얻을 수 있다.</p> <p>* 검정색 아쿠아 컬러를 물에 개어 세필 붓을 사용하여 지브라 패턴을 그려준다.</p> <p>( 패턴을 그릴 때 섬세하고 가는 검정펜슬로 미리 선을 그린 후 색감을 바르면 균형이 정확해지고, 가는 선을 그릴 때는 반대손이 그림을 그리는 손을 지지해주면 안정감이 생긴다. 본 작품에서는 대칭이 되어 깔끔한 선보다는 자연스러운 문양이 컨셉에 맞아 밑그림을 생략하였다. )</p> <p>* 인조속눈썹을 붙이고, 립글로스를 발라 마무리한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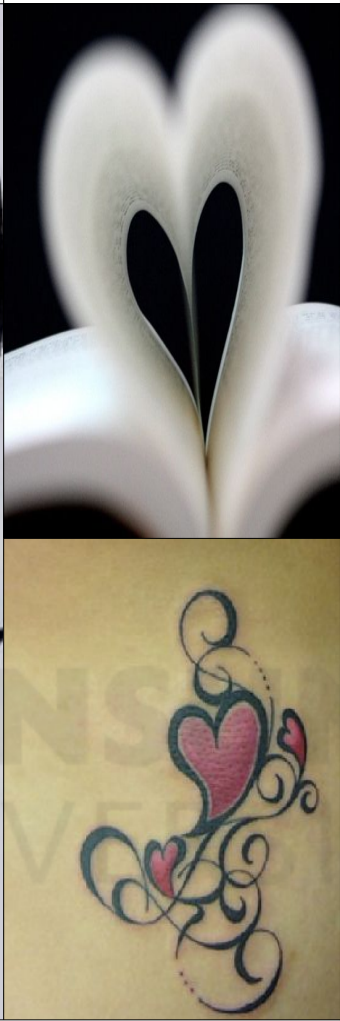
<작업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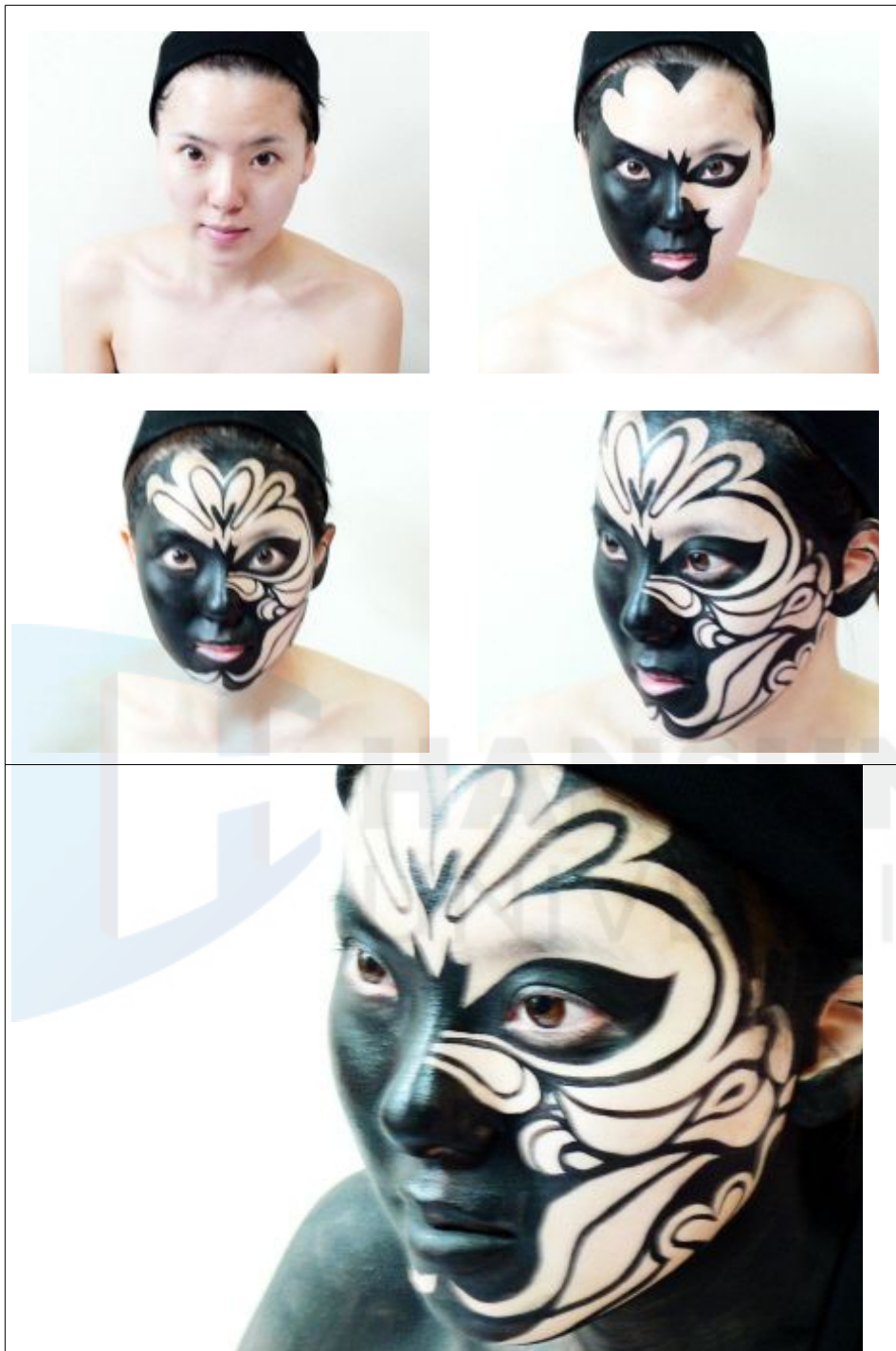


## 2. 트라이벌 문양을 응용한 페인팅 작품.

| 일 러 스 트                                                                            | 응용 모티브                                                                                                                         |
|------------------------------------------------------------------------------------|--------------------------------------------------------------------------------------------------------------------------------|
|  |                                             |
| <p>작업의도</p>                                                                        | <p>원시 부족들의 전통적 문양을 상징적인 의미로 단순화를 시켜서 형이하학적인 무늬부터 의미를 담고 있는 무늬의 문신까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강렬한 표현인 트라이벌을 아쿠아 물감을 사용하여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한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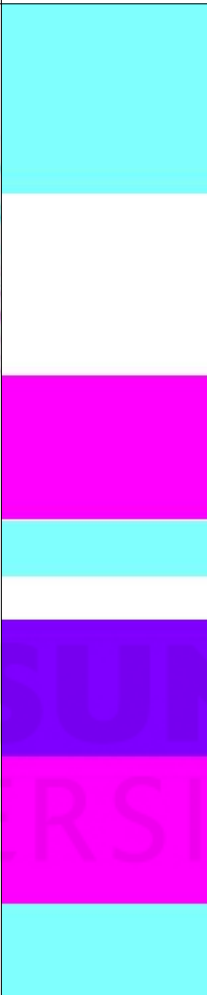
|      |                                                                                                                                                                                                                                                                                                                                                                                                                                                                                                                                                                                       |
|------|---------------------------------------------------------------------------------------------------------------------------------------------------------------------------------------------------------------------------------------------------------------------------------------------------------------------------------------------------------------------------------------------------------------------------------------------------------------------------------------------------------------------------------------------------------------------------------------|
| 사용재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색 아쿠아물감</li> <li>* 아쿠아 전용 브러시</li> </ul>                                                                                                                                                                                                                                                                                                                                                                                                                                                                                                   |
| 작업순서 | <p>( 모델의 피부를 깨끗하게 보정해주는 의미에서 기초 손질을 해주어도 좋지만 본 작품에서는 컨셉에 중요하게 차지하지 않아 생략하였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색 아쿠아 물감을 물에 개어 원하는 농도를 맞추고, 브러시를 사용하여 가장 큰 모티브부터 그려준다.</li> <li>* 검정색으로 채색되어야할 부분을 브러시를 사용하여 채색해주는데, 브러시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br/>(넓은 부위에는 스펀지를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본 작품은 문양이 많아서 브러시만을 사용하였다.)</li> <li>* 큰 모티브 안에 같은 방법으로 세밀한 문양을 넣는다.<br/>(섬세한 선을 그릴 때는 새끼손가락을 모델의 얼굴에 지지대삼아서 그리면 떨림이 적다.)</li> </ul> <p>본 작품은 페인팅의 기법만 사용하여 모든 문양을 직접 핸드 브러시 하였지만 스텐실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 스텐실을 적용시킬 경우 큰 모티브가 되는 부분은 스텐실지를 제작하여 판화를 찍어내는 방법으로 검정색을 채색해 주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만 그려주어도 가능하다.</p> |

<작업과정>





### 3. 액션페인팅 기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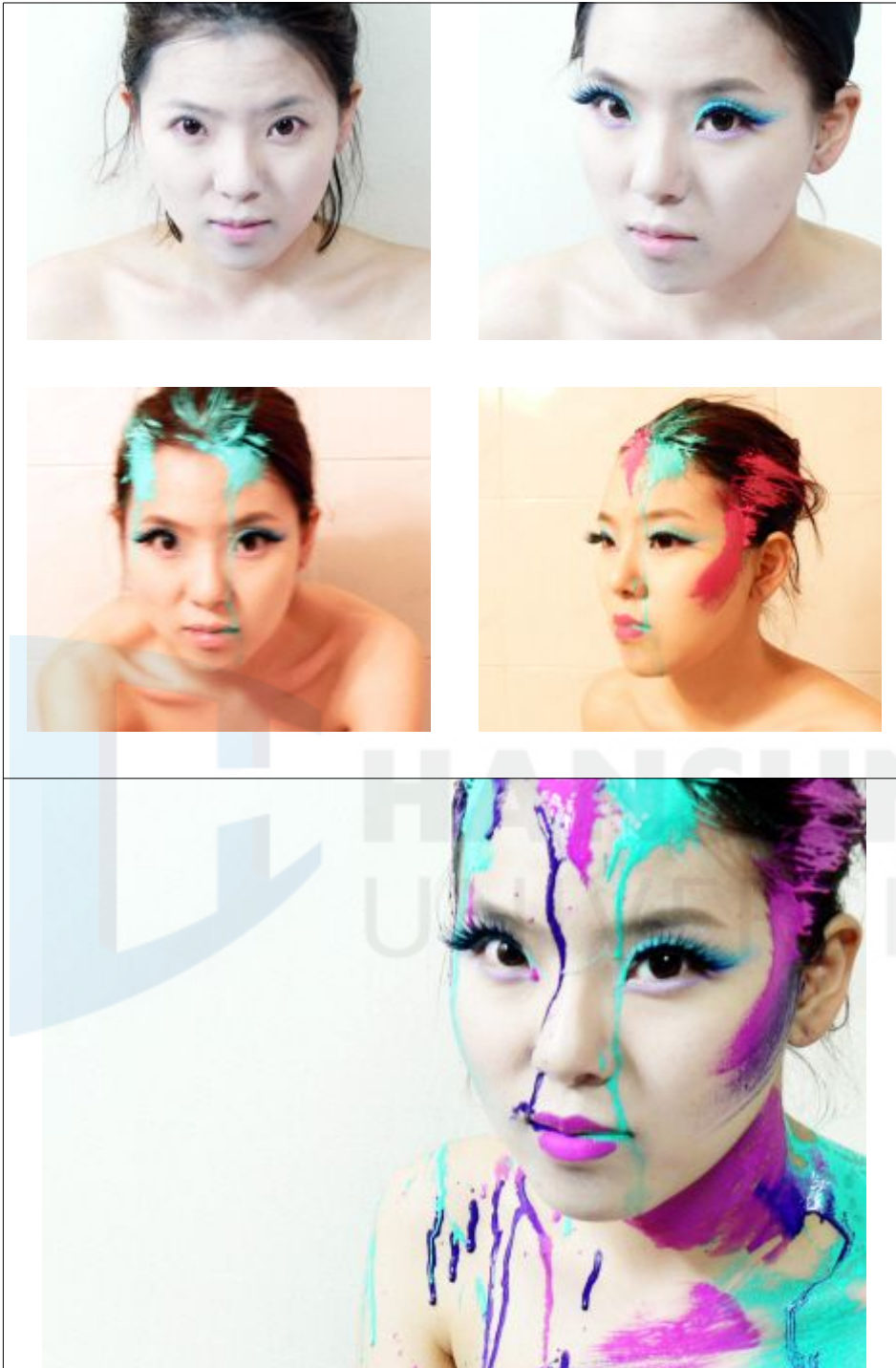
| 일 러 스 트                                                                            | 주요 color                                                                                                                   |
|------------------------------------------------------------------------------------|----------------------------------------------------------------------------------------------------------------------------|
|  |                                         |
| <p>작업의도</p>                                                                        | <p>순간의 행위를 통하여 우연성의 효과를 새로운 미의 식으로 발전시킨 '추상표현주의'라는 미국의 미술양식에서 시작된 액션페인팅을 이용하여 구상 하에 이뤄지지만 작업하면서 우연성에 의한 디자인이 완성되도록 한다.</p> |



|      |                                                                                                                                                                                                                                                                                                                                                                                                                                                                                                                                                                                                                                                                  |
|------|------------------------------------------------------------------------------------------------------------------------------------------------------------------------------------------------------------------------------------------------------------------------------------------------------------------------------------------------------------------------------------------------------------------------------------------------------------------------------------------------------------------------------------------------------------------------------------------------------------------------------------------------------------------|
| 사용재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의 피부색보다 밝은 파운데이션과 파우더</li> <li>* 브라운색, 에메랄드색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li> <li>* 수성 베이스의 물감. (에메랄드, 마젠타, 바이올렛)</li> <li>* 인조속눈썹, 눈썹 풀, 브러시, 스펀지</li> </ul>                                                                                                                                                                                                                                                                                                                                                                                                                                                                        |
| 작업순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의 피부색보다 한톤 밝게 파운데이션과 라텍스 스펀지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고루 펴 바르고, 파우더를 칠하여 파운데이션을 고정해준다.</li> <li>* 컨셉에 맞춰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먼저 하는데, 갈색 섀도우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리고, 에메랄드색의 아쿠아 컬러를 물에 개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바르고 그 위에 동일한 칼라의 아이섀도우로 눈 화장을 하였다.</li> <li>* 컨셉에 맞는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블루블랙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주었다.<br/>(컨셉에 따라 볼터치와 립스틱도 미리 해두지만, 액션페인팅에 사용될 물감으로 표현할 예정이므로 생략하였다.)</li> <li>* 크림과 로션의 중간 정도 묽기의 수성 물감을 준비 하는데, 케익타입의 아쿠아 물감을 개어 사용하거나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을 섞어서 너무 묽지 않도록 한다. 사진 작업만을 위해 단시간동안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가되지 않는 미술용 물감을 사용하여도 무관하다.</li> <li>* 밝은색 칼라부터 시작하여 떨어뜨리거나 부어준다.</li> <li>* 필요에 따라서 펜 브러시나 나이프를 사용하여 찍거나 긁는 테크닉으로 묻히거나 물감이 몸에 튀기겠금 뿌려준다.</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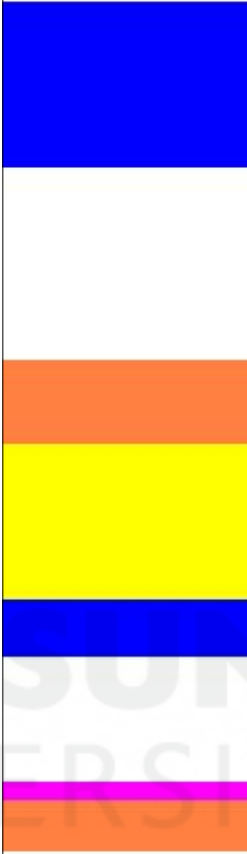


<작업 과정>





#### 4. 스톤을 사용한 폴라주 기법의 작품.

| 일 러 스 트                                                                            | 주요 color                                                                                                            |
|------------------------------------------------------------------------------------|---------------------------------------------------------------------------------------------------------------------|
|  |                                  |
| <p>작업의도</p>                                                                        | <p>폴라주 기법을 메이크업에 적용시켜서 메이크업에 조형성과 질감을 표현하여 새로운 재미를 유발시킨다. 본 작품에서는 가장 사용빈도가 많은 인조 스톤을 사용하여 쉽게 화려함을 더할 수 있도록 하였다.</p> |

|      |                                                                                                                                                                                                                                                                                                                                                                                                                                                                                                                                                                                                                                                                                                        |
|------|--------------------------------------------------------------------------------------------------------------------------------------------------------------------------------------------------------------------------------------------------------------------------------------------------------------------------------------------------------------------------------------------------------------------------------------------------------------------------------------------------------------------------------------------------------------------------------------------------------------------------------------------------------------------------------------------------------|
| 사용재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운데이션, 파우더(투명, 오렌지)</li> <li>* 수성물감(블루), 아이섀도우(블루, 옐로, 오렌지)</li> <li>* 인조보석, 인조속눈썹, 리퀴드 라텍스</li> <li>* 브러시, 족집게, 종이, 스펀지, 퍼프, 면봉</li> </ul>                                                                                                                                                                                                                                                                                                                                                                                                                                                                                                                   |
| 작업순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의 피부보다 한톤 밝게 크림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고루 바른다. 매트한 피부 질감을 위해 파우더를 분첩에 묻혀 눌러주며 바른다.</li> <li>* 푸른색 수성물감을 물에 개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인을 위, 아래 다 하고 위에 비슷한 색의 아이섀도우를 한번 더 해준다.</li> <li>* 옐로우와 오렌지의 아이섀도우를 브러시를 사용하여 그라데이션해서 코벽과 눈썹 부분을 표현한다.<br/>(아이섀도우로 밑에 같은 칼라의 수성이나 유성물감을 사용하여 먼저 그라데이션 시킨 후 섀도우를 덧칠하면 더 선명하고 진한 칼라를 얻을 수 있고, 스톤을 붙이면서 밑 화장을 만질 염려가 있어 블러셔와 립스틱은 마지막에 한다.)</li> <li>* 미리 면봉으로 붙여질 부분에 리퀴드 라텍스를 바른 후 족집게나 면봉을 사용하여 스톤을 붙여준다.<br/>(작은 사이즈는 족집게로 잡히지만 큰 사이즈는 족집게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면봉에 라텍스를 묻혀서 스톤을 찍어서 붙여준다.)</li> <li>* 인조속눈썹을 붙이고 주황색 파우더를 선적인 느낌으로 연출하기 위해 종이를 대고 브러시를 이용해서 칠한다.</li> <li>* 색채가 강하므로 입술을 핑크빛이 조금만 나타내지는 투명한 립글로스를 발라서 마무리해준다.</li> </ul> |

<작업과정>









## 5. 스텐실을 이용한 메이크업

| 일 러 스 트                                                                            | 응용모티브                                                                                                                                                                     |
|------------------------------------------------------------------------------------|---------------------------------------------------------------------------------------------------------------------------------------------------------------------------|
|  | <br> |
| 작업의도                                                                               | <p>스텐실을 사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모티브를 옮길 수 있다. 또한 여러명에게 같은 모티브를 옮겨야 할 경우 아주 용이하다. 본 작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스텐실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한다.</p>                                                            |

|      |                                                                                                                                                                                                                                                                                                                                                                                                                                                                                                      |
|------|------------------------------------------------------------------------------------------------------------------------------------------------------------------------------------------------------------------------------------------------------------------------------------------------------------------------------------------------------------------------------------------------------------------------------------------------------------------------------------------------------|
| 사용재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운데이션, 파우더, 라텍스 스펀지, 퍼프</li> <li>* 수성물감, 바디페인팅 스펀지</li> <li>* 스텐실(고무판, OHP필름, 카터칼, 테이프, 도안)</li> <li>* 립글로스, 인조속눈썹, 눈썹 풀</li> </ul>                                                                                                                                                                                                                                                                                                                         |
| 작업순서 | <p>&lt;스텐실 제작&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하고자 하는 모티브를 찾아서 원하는 크기에 맞게 복사한다.</li> <li>* 고무판 위에 복사한 종이를 올리고 그 위에 OHP 필름을 고정시킨다.</li> <li>* 카터칼을 사용하여 모티브를 오려낸다.</li> </ul> <p>&lt;메이크업 시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의 피부에 맞는 컬러의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깨끗하게 발라준다.</li> <li>* 필요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해주지만, 본 작품에서는 생략하였다.</li> <li>* 미리 제작해둔 스텐실지를 모델의 피부에 고정시키고 물에 갠 아쿠아컬러를 스펀지를 사용하여 두들겨주는 방법으로 관화를 찍듯이 찍어준다.</li> <li>*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투명한 립글로스를 발라 마무리한다.</li> </ul> |

<작업과정>



<작품 응용>

|                                                                                     |                                                                                                                 |
|-------------------------------------------------------------------------------------|-----------------------------------------------------------------------------------------------------------------|
| 작품의도                                                                                | 간단하게 스텐실을 사용하여 완성시킨 메이크업에 풀라주의 방법인 인조스톤을 부착하여 조형성과 새로운 재미를 부여한다.                                                |
| 작업순서                                                                                | 스텐실에 의해 완성된 모델의 얼굴에 리퀴드 라텍스를 면봉을 사용하여 인조스톤에 발라준다. 모델의 얼굴에서 원하는 위치에 인조스톤을 부착하여 준다.<br>인조스톤의 크기가 크므로 손으로 직접 부착한다. |
|  |                                                                                                                 |

## 6. UV 발광 물감을 사용한 메이크업

| 일 러 스 트                                                                            | 주요 color                                                                                                  |
|------------------------------------------------------------------------------------|-----------------------------------------------------------------------------------------------------------|
|  |                        |
| 작업의도                                                                               | <p>UV 전용 물감과 조명을 사용하면 일반 수성 제품으로 일반 조명에서 연출하는 것과는 달리 화려한 빛의 효과를 줄 수 있어서 간단한 작업과정에 반해 환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p> |

|      |                                                                                                                                                                                                                                                                                                                                                                                                                                                                                                                                |
|------|--------------------------------------------------------------------------------------------------------------------------------------------------------------------------------------------------------------------------------------------------------------------------------------------------------------------------------------------------------------------------------------------------------------------------------------------------------------------------------------------------------------------------------|
| 사용재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V 발광 물감</li> <li>* 블랙라이트</li> <li>* 브러시</li> </ul>                                                                                                                                                                                                                                                                                                                                                                                                                                   |
| 작업순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랙라이트에 비출 경우 모델의 피부는 블랙으로 보이므로 베이스는 생략한다.</li> <li>* 아쿠아 베이스의 UV 물감을 물에 게어 적절한 농도를 맞추고 브러시를 사용하여 원하는 모양을 큰 모티브부터 그려준다.</li> <li>* 가능하다면 블랙라이트 아래서 직접 조명에 비춰진 모습을 보며 작업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블랙라이트에서 표현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며 작업한다.</li> </ul> <p>이는 블랙라이트 조명에서와 일반 조명에서 비춰지는 물감의 색이 다르기 때문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때 주의할 점은 되도록 각 색깔별로 브러시와 물을 따로 사용해 준다.</li> </ul> <p>브러시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감이 혼색 될 수 있는데, UV 작업은 색을 빛으로 나타내는 빛의 색이므로 혼색되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p> |



<작업과정>





## V. 결론 및 제언

원시시대의 메이크업 행위가 주로 종족을 보호하거나 신분을 구분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시의 수단, 종교적인 주술의 형태, 외부의 위험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보호, 종족의 번식을 위한 목적 등, 자신을 지키고 강해보이도록 하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에서 행해진 반면, 현대사회에서의 아트메이크업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상상력이나 메시지 등을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인체에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한 예술적인 수단으로 여러 영역으로 널리 확장되어 활용되는 추세이며, 현재 ‘전국 대학의 아트메이크업학과 개설 현황’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교육에 있어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립된 아트메이크업의 영역확대 및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트메이크업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와, 그 재료를 사용한 방법론적인 이론을 정립하여 아트메이크업에 있어서 올바른 재료 및 도구의 사용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아트메이크업 작업에 필요한 재료 및 기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논문들과 관련 서적, 인터넷 등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원시시대부터 행해져온 메이크업의 기원을 기본 개념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아트메이크업의 역사와 여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방법 및 다양한 사용재료의 종류와 재료의 장, 단점 위주로 고찰하였고, 각 표현방법에 의한 실제 작품을 제작하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 논문과 관련서적 및 문헌을 통하여 아트메이크업

의 정의와 기원 및 형성배경과 시대별로 발전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개념을 재정립하였고, 아트메이크업의 작업에 있어 디자인의 구상방법과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재료의 사용방법에 따라 페인팅 기법, 액션페인팅 기법, 풀라주 기법, 스텐실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UV 발광 기법으로 분류하여 관련 서적과 기존의 선행 연구 논문들을 참고로 하여 고찰하고,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사례를 연구자가 작품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작품의 제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동물의 문양을 응용한 메이크업과 트라이벌을 응용한 메이크업의 작품 결과는 물감과 브러시, 스폰지만을 사용한 페인팅 기법으로 상징적인 표현과 사실적인 회화 묘사 등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액션페인팅에 기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을 통해 수성안료의 물감을 뿌리고 쏟아 부는 행위에 의해 제작한 액션페인팅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우연성에 의한 다양한 디자인의 작품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스톤을 사용한 풀라주 기법의 메이크업 작품과 스텐실 작품을 응용한 작품을 통하여 메이크업과 이질적인 재료의 조합으로 새로운 조형미와 재미를 유발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스텐실을 이용한 메이크업 작품을 통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모티브를 옮기고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UV 발광 물감을 사용한 메이크업 작품을 통하여 UV 물감이 일반 조명 아래서와 UV 조명인 블랙라이트 아래서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UV 물감과 조명의 활용성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방법론적

인 것에 한하여 언급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 한계점으로는 각 재료들에 의한 방법론 위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좀 더 깊이 있는 표현기법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과 앞서 다루었던 여러 기법에 대한 작품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아트메이크업 분야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강고운(2006), 「스텐실 기법의 활용을 통한 명도와 채도의 학습지도 방안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병석(1994), 「토탈 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선정(2004), 「추상 표현주의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공웅(1991), 『Airbrush Illustrations』, 조형사
- 김난경(1993), 「우리나라 抽象表現主義 繪畫技法을 통한 本人 作品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영경(1995), 「이집트 장식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성(2003), 「아트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희, 정윤희, 황윤정(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경춘사
- 노희영(2002), 「현대아트메이크업의 회화적 경향과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신(2000), 「신체 조형으로서의 body-painting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선(2001), 「조선시대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미숙(2006), 「추상표현주의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민정(1991), 「우리나라 傳統 化粧文化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식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안연희(1999),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 오대식(2007),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아트 표현의 실제」,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은(2006),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꼴라주 형태 및 표현특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월간미술(편)(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 유정주(2003),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 소재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원선(1991), 「현대자수에 있어서 꼴라주와 켈트의 재료 및 표현기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2004), 「포스트 모던적 현대 메이크업」,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철(1996), 『21세기 문화 미리보기』, 시각과 언어
- 이재형(2004),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순(1998), 「기하학적 모티브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꼴라주 기법에 의한 부조적 표현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지연,노선옥,이귀영,이영애(2001), 『FACES IN MAKE UP』, 청구문화사  
최성민(2006), 『The body art with colors vol.2』, 다움디자인  
최은지(1999),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미용학회(2003), 『미용학사전』, 신광출판사  
한명숙(2001), 『메이크업 디자이너를 위한 마귀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홍지현(200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문신 유형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외문헌

青山行未(1976), 『History of beauty culture』, わしやの文化  
Mary Lou Rosencranz(1972), 『Clothing Concept』, Macmillan Pub-  
lishing Co. Inc

## 웹문서

[www.vogue.com](http://www.vogue.com)

[www.veruschkaselfportraits.com](http://www.veruschkaselfportraits.com)

[www.wolf-magic.de](http://www.wolf-magic.de)

## -그 립 문 헌-

- <그림 1> 『월간지오』(1998), p.22
- <그림 2> Thames&Hudson(1998), 『Decorated skin』, p.96
- <그림 3> 김지희 외(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경춘사, p.10
- <그림 4> 김지희 외(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경춘사, p.10
- <그림 5> 김지희 외(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경춘사, p.11
- <그림 6> Thames&Hudson(1998), 『Decorated skin』, p.48
- <그림 7> Alberto Carlo Carpiceci(1994), 『Art and History of Egypt』,  
bonechi, p.115
- <그림 8> Francois Boucher(1983), p.208
- <그림 9> 주간한국(2003)
- <그림 10> <http://cafe.naver.com/ihappylife>
- <그림 11> <http://cafe.naver.com/bobbibrownkorea>
- <그림 12> Amy de la haye(1988), 『Fashion Source Book』, p82
- <그림 13> 천지연 외(2001), 『FACES IN MAKEUP』, 청구문화사, p.193
- <그림 14> Richard Corson(2003), p.565
- <그림 15> Joel Lobenthal(1990), p.37
- <그림 16> Lehnert, Gertrud(2000), 『Valerie D.History of fashion in the  
20th century』, p.80
- <그림 17> <http://home.megapass.co.kr/~echelon0/queen>
- <그림 18> <http://www.pinocchia.com/galleries>
- <그림 19> <http://www.style.com> (2003 크리스찬 디올)

<그림 20> Karala Barendregt(2008), 『Bringing Bodypainting to Life』,  
p.27

<그림 21> <http://www.cirquedusoleil.co.kr>

<그림 22> <http://www.ondisk.co.kr> (도전 슈퍼모델 시즌 4)

<그림 23> 김양은 외(2009), 『‘ART’ Make-up』. 광문각, p.97

<그림 24> <http://www.moschino.it>

<그림 25> <http://www.veruchkaselfportraits.com>

<그림 26> <http://www.ondisk.co.kr> (도전 슈퍼모델 시즌 12)

<그림 27> <http://www.ondisk.co.kr> (도전 슈퍼모델 시즌 10)

<그림 28> <http://www.vogue.com> (2000 존 갈리아노)

<그림 29> Karala Barendregt(2008), 『Bringing Bodypainting to Life』,  
p.108

<그림 30> <http://www.vogue.com> (2008 크리스찬 디올)

<그림 31> <http://www.vogue.com> (2008 크리스찬 디올)

<그림 32> <http://www.vogue.com> (2007 장 폴 고티에)

<그림 33> <http://www.vogue.com> (2001 존 갈리아노)

<그림 34> <http://www.ondisk.co.kr> (도전 슈퍼모델 시즌 4)

<그림 35> <http://www.ondisk.co.kr> (도전 슈퍼모델 시즌 4)

<그림 36> <http://www.ondisk.co.kr> (도전 슈퍼모델 시즌 4)

<그림 37> Karala Barendregt(2008), 『Bringing Bodypainting to Life』,  
p.110

<그림 38> <http://www.style.com> (2001 루엘라)

<그림 39> <http://www.style.com> (2002 한송)

<그림 40> <http://www.atelieracademy.com>

<그림 41> Karala Barendregt(2008), 『Bringing Bodypainting to Life』,  
p.160

<그림 42> Karala Barendregt(2008), 『Bringing Bodypainting to Life』,  
p.220

<그림 43> Karala Barendregt(2008), 『Bringing Bodypainting to Life』,  
p.217

<그림 44> <http://www.wolf-bodymagic.de>

<그림 45> <http://www.wolf-bodymagic.de>

<그림 46> <http://www.wolf-bodymagic.de>

<그림 47> <http://www.wolf-bodymagic.de>



# ABSTRACT

## A Study on Expression Techniques of Art Make up -Focuse on expression way and use materiar of art make up-

Nam, Eun Sun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aign

Gran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Make-ups in the modern world are no longer the conventional art of standardization, but have become more individualized and diversified, and the conventional art make-ups are being used as a supplementary device to promote the level of perfection on fashion during fashion shows. However, as an independent artistic genre, make-ups can now be treated as art on its own not depending on fashion or other external elements and makes-ups have sufficient potentials to become a completely independent professional field in the future.

At present, it might be early to say make-ups are an independently professional field, but I have carried out research on the related courses at beauty schools nationally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akes-ups become an independent course at beauty schools in the near future. As a result, it has been found that about 26% of 4-year course universities and 46% of 2-year course colleges have established



“Make-ups” as one of their formal courses. This result shows that make-ups have a growing potential to become an independent course at college level.

By looking into the theses written by preceding researchers, it was found that the majority of the theses were focused on the concepts of “art make-ups” and combining the expressing techniques with the Art trend. However, by realizing that there has been no formulated work on the methodologies and the materials of art make-ups, I have decided to establish a list of materials used in art make-ups and the methodological theory of applying those materials with the objective of suggesting the appropriate materials and methodologies to be used in art make-ups.

The research process is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history and the influence of art make-ups throughout the Ancient, the Middle and the Modern ages, the Twentieth century and today with the fundamental concepts focused on the origins of art make-ups during the primitive age. The list of materials, the qualities of materials and the methods to use those materials have been studied. The presentation techniques and the examples of such techniques being applied have been collected in order to be analyzed and based on the previously mentioned theories, my final work has been completed.

As a conclusion, it became clear that when listing the techniques of art make-ups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he methodological techniques of expression and the techniques shown in imaging works being expressed. For example, the graphical technique is defined as the expression of drawing a detailed picture by either using an air brush or painting, however, the techniques of using dyes is put together as the graphical techniques.

It is considered that in order to eliminate confusion there must b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pictorial, graphical and the application techniques of trivial with an example of one being expressed by design and the methodological ones such as the action painting, air brush techniques and etc.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ose six techniques mentioned above was carried out, however, I regret that the design of the actual work was not completed and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re has been no suggestion of works using more diversified materials.

